금수강산
10
주체111(2022)
루계 제398호 월간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오늘의 조국사 2022 ISSN 1727—9062

차 례

주체111(2022)년 10월호

제398호
주체78(1989)년 8월 창간

표지: 3인군상

로동자, 농민, 지식인이 높이 추켜든 마치와 낫과 붓은 조선로동당의 마크이다.
이것은 조선로동당이 인민대중속에 깊이 뿌리박고 인민에게 의거하여 인민의 요구와 리익을 실현해나가는 혁명적인 당, 대중적인 당이라는것을 상징한다.

편집: 서철남, 최경희, 최은혁　　ㄱ-2280187

위대한 우리 국가의 무궁한 번영을 위하여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공화국정부의 시정방침을 천명하시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7차회의에서 하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시정연설

주체111(2022)년 9월 8일

친애하는 대의원동지들!

존경하는 상임위원장동지, 그리고 최고인민회의 부의장동지!

방청자 여러분!

영광스러운 우리 조국의 창건기념일을 앞두고 소집된 이번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7차회의에서는 당과 국가의 주요정책들을 실현하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법적무기들을 마련하였습니다.

특히 전체 조선인민의 총의에 의하여 국가핵무력정책과 관련한 법령을 채택한것은 국가방위수단으로서 전쟁억제력을 법적으로 가지게 되였음을 내외에 선포한 특기할 사변으로 됩니다.

이로써 국가와 인민의 영원한 안전과 만년대계의 미래까지도 확고히 담보할수 있는 정치적, 제도적장치가 갖추어지는 또 하나의 중대한 력사적위업이 달성되였습니다.

나는 우리 혁명앞에 조성된 현국면과 정세발전추이로 보나 공화국핵무력의 사명으로 보나 매우 중대한 력사적시기에 핵무력정책이 법화되였다고 인정하면서 전체 대의원동지들이 가장 책임적인 시각에 가장 책임적인 결정을 만장일치로 채택해준데 대하여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인민의 대표로서 국가주권을 반석같이 다지며

조선로동당 제8차대회가 제시한 투쟁목표를 실현하는데 힘과 지혜와 열정을 다하고있는 대의원동지들에게 뜨거운 격려의 인사를 드립니다.

동지들!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사회주의건설은 높은 단계에로 심화될수록 제국주의의 더 큰 도전과 반항에 부딪치게 됩니다.

침략과 략탈을 본성으로, 생존수단으로 삼고있는 제국주의가 존재하는한 전쟁의 근원은 종식될수 없으며 력사발전에서 자주와 평화를 지향하는 사회주의와 제국주의간의 대립과 투쟁은 불가피한것입니다.

그러므로 사회주의의 줄기찬 발전과 번영을 이룩하는데서 어떠한 침략위협도 통할수 없는 조건과 환경을 마련하는것이 중차대하고 사활적인 요구로 나서며 이를 실현하자면 적들을 압승할수 있는 절대적힘을 가지고있어야 합니다.

이미 우리 공화국은 반제투쟁의 성새, 사회주의의 강경보루로서 온갖 적대세력의 간섭과 압력에도 끄떡하지 않고 자기의 시간표에 따라 자위적국방력건설을 완강히 추진하여 미제가 일방적으로 핵위협을 가해오던 시대를 끝장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핵무력정책을 법적으로까지 완전고착시키는 력사적대업을 이룩하였습니다.

이번에 국가핵무력정책을 법화한것은 공화국정부의 자주적결단과 견결한 국권수호, 국익사수의지에 대한 더욱 뚜렷한 과시로 됩니다.

우리의 핵무기는 건국초기부터 세계최초의 핵사용국이며 세계최대의 핵보유국인 미국의 핵공갈을 받아온 우리 공화국이 자기의 존엄과 안전을 굳건히 수호하고 핵전쟁위험을 완전히 제거하기 위하여 수십년간의 간고하고 피어린 투쟁으로 마련한 억제수단, 절대병기입니다.

지금 미국은 우리의 핵과 자위력강화가 세계평화와 지역의 안전에 중대한 위협으로 된다는 얼토당토않은 궤변으로 국제무대에서 우리 공화국정권을 《악마화》해놓기 위한 여론퍼뜨리기에 집착하면서 우리를 심리적으로, 물리적으로 제압하기 위해 추종세력들까지 총발동한 사상최악의 제재봉쇄와 정치군사적공세에 집요하게 매달리고있습니다.

미국이 노리는 목적은 우리의 핵 그 자체를 제거해버리자는데도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핵을 내려놓게 하고 자위권행사력까지 포기 또는 렬세하게 만들어 우리 정권을 어느때든 붕괴시켜버리자는것입니다.

미국은 사상최대의 제재봉쇄로써 우리에게 간고한 환경을 조성하고 진맥이 나게 하며 우리로 하여금 국가의 안정적발전환경에 대한 불확신성과 위협을 느끼게 함으로써 우리가 핵을 선택한 대가에 대하여 생각해보게 하고 당과 정부에 대한 인민들의 불만을 유발, 야기시켜 우리스스로 핵을 내려놓지 않으면 안되게 만들어보자고 기도하고있습니다.

천만에!

이것은 적들의 오판이고 오산입니다.

백날, 천날, 십년, 백년을 제재를 가해보라 합시다.

지금 겪고있는 곤난을 잠시라도 면해보자고, 에돌아가자고 나라의 생존권과 국가와 인민의 미래의 안전이 달린 자위권을 포기할 우리가 아니며 그 어떤 극난한 환경에 처한다 해도 미국이 조성해놓은 조선반도의 정치군사적형세하에서, 더우기 핵적수국인 미국을 전망적으로 견제해야 할 우리로서는 절대로 핵을 포기할수 없습니다.

우리 인민은 미제국주의자들의 상투적인 설교와 궤변과 제재압박, 군사적위협에 못이겨 잘못된 선택으로 비참한 말로를 걷고 비극적인 마감을 맞은 20세기, 21세기의 수많은 력사의 사건들을 잘 알고있습니다.

우리 세대는 저 하나의 안락을 찾기 위해, 직면한 오늘의 고생을 피하기 위해 적들의 간교한 설교와 끈질긴 압박에 못이겨 우리 공화국정권과 후대들의 안전을 담보하는 핵을 대부로 개선된 가시적인 경제생활환경을 추구하지 않을것이며 천신만고한대도 우리는 자기의 선택을 바꾸지 않을것입니다.

하여 공화국발전사에 가장 위대하고 강인한 세대로 남아야 합니다.

미국은 절대로, 절대로 우리국가를 상대로 저들의 기도를 실현할수 없으며 우리 인민의 선택을 바꿔놓지 못할것입니다.

시간이 과연 누구의 편에 있습니까.

바쁘면 지금 적들이 바빠났지 우리는 바쁠것이 하나도 없으며 우리는 얼마든지 지금의 이 환경하에서도 우리의 힘으로, 우리식대로 살아나갈수 있습니다.

미국의 야수적인 대조선적대시정책으로 하여 우리 인민에게 들씌워지는 고통의 시간이 길어지는데 정비례하여 우리의 절대적힘은 계속 가속적으로 강화되고있으며 그들이 부닥치게 될 안보위협도 정비례하게 증대되고 있습니다.

공화국핵무력은 우리 국가에 대한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의 엄중한 정치군사적도발을 억제하고 전망적인 위협을 관리하는데서 자기의 중대한 사명을 책임적으로 수행할것이며 바로 이에 대하여 오늘 국법으로 명기하였습니다.

자주와 자존, 인민의 운명을 제일 귀중히 여기고 그에 위해로 되는 적대행위를 절대로 용서치 않으며 한다면 무조건 해내고야 마는 우리 공화국이기에 이렇듯 국가핵무력정책을 법화하는 담대한 정치적결단을 내릴수 있은 것입니다.

세계는 패권주의가 더욱 살판치는 오늘날 진정한 자주강국, 정의로운 국가란 어떤 나라이며 악의 제국 미국에 당당히 맞서나가는 우리 공화국의 불가항력적인 기상이 얼마나 강한가를 다시금 똑똑히 알게 될것입니다.

동지들!

두자루의 권총으로부터 시작된 우리 혁명이 오늘에 이르기까지 걸어온 간고하고도 기나긴 려정을 돌이켜보느라니 그 길에 응축된 만단사연들이 마쳐와 마음이 뜨거워짐을 금할수 없습니다.

성과는 실로 거대해도 전체 인민들의 아낌없는 지지성원과 고귀한 피땀, 형언할수 없는 고생과 바꾼것이기에 더욱더 무겁게,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사실 제국주의련합세력과 단독으로 맞서 가장 야만적이며 횡포한 제재압살책동을 짓부시면서 공화국핵무력을 건설하고 전투태세를 완성한다는것은 모진 고통과 국난을 감수하고 겪어야 하는 생사판가리의 결사전이였습니다.

그만큼 사랑하는 우리 인민들과 아이들이 허리띠를 더 조이고 배를 더 곯아야 하였고 귀중한 우리의 모든 가정들에 엄청난 생활난이 초래되지 않으면 안되였습니다.

보다 큰 승리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기는 하였지만 너무도 큰 대가를 각오해야 했고 누구도 걸어보지 못한, 결과를 쉽게 예측할수는 없었던 험난한 초행길이였습니다.

하지만 우리 인민은 자기 인민에 대한 믿음 하나로 시작한 우리 당의 위업을 절대지지해주고 천신만고를 다 떠맡아 이겨내며 일심전력으로 받들어주었습니다.

국가핵무력건설의 력사적대

업을 성취하는데서 우리의 과학자, 기술자들이 크게 공헌하였지만 그처럼 모질고 지속적인 고생을 다 감내해내면서도 절대로 굴하지 않고 승리를 굳게 믿어준 우리 인민이 아니였다면 핵보유의 길을 끝까지 걸을수 없었을것이며 우리 공화국이 이렇듯 핵무력정책을 법화하는 날을 맞이하지 못하였을것입니다.

우리 인민만이 가지고있는 특출하고 열렬한 강인성과 애국심은 결국 온갖 난관을 딛고 이겨 우리 국가의 영광과 감히 건드릴수 없는 존귀한 위엄을 하늘끝에 떠받들어올렸습니다.

나는 당과 정부를 대표하여 온 나라 인민들에게 가장 충심으로 되는 감사의 인사를 삼가 드립니다.

동지들!

전체 인민의 한결같은 의사와 철석의 의지를 담아 핵무력정책을 법적으로 고착시킨것은 참으로 거대한 의의를 가집니다.

핵무력정책을 법화해놓음으로써 핵보유국으로서의 우리 국가의 지위가 불가역적인것으로 되였습니다.

이제 만약 우리의 핵정책이 바뀌자면 세상이 변해야 하고 조선반도의 정치군사적환경이 변해야 합니다.

절대로 먼저 핵포기란, 비핵화란 없으며 그를 위한 그 어떤 협상도, 그 공정에서 서로 맞바꿀 흥정물도 없습니다.

핵은 우리의 국위이고 국체이며 공화국의 절대적힘이고 조선인민의 크나큰 자랑입니다.

지구상에 핵무기가 존재하고 제국주의가 남아있으며 미국과 그 추종무리들의 반공화국책동이 끝장나지 않는한 우리의 핵무력강화로정은 끝나지 않을것입니다.

공화국핵무력은 곧 조국과 인민의 운명이고 영원한 존엄이라는것이 우리의 확고부동한 립장입니다.

우리의 핵을 놓고 더는 흥정할수 없게 불퇴의 선을 그어놓은 여기에 핵무력정책의 법화가 가지는 중대한 의의가 있습니다.

핵무력정책이 법화됨으로써 우리 공화국정부의 평화애호적립장과 우리 국가핵무력정책의 투명성, 당위성이 더욱 확실해졌습니다.

침략과 전쟁이 없는 세계에서 평화롭게 살려는것은 인류의 념원입니다.

하지만 평화는 바란다고 하여 저절로 오지 않으며 그것은 제국주의전횡을 억제할수 있는 힘으로써만 쟁취하고 수호할수 있습니다.

우리 공화국이 핵무력정책을 법화한것은 자주권과 평화를 침해하고 파괴하는 제국주의자들에 대한 정의의 타격으로 됩니다.

공화국핵무력은 남의 내정에 간섭하거나 패권을 추구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제국주의폭제로부터 우리 령토와 인민, 자존을 수호하고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지키기 위해 존재하고 사용되며 따라서 우리를 우호적으로 대하고 평화를 원하는 나라와 인민에게는 절대로 위협으로 되지 않습니다.

핵무기는 그 특성으로 하여 관리와 운용 등에 대한 기준과 원칙이 법적으로 정확히 규제되여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통제불능한 상태에서 다른 목적에 람용되거나 불순한 리익실현에 도용되여 임의의 순간에 인류를 무서운 핵참화에 빠뜨릴수 있습니다.

우리 공화국은 핵무력정책과 관련한 이번 법령에 핵무력의 사명과 구성, 그에 대한 지휘통제, 사용원칙과 사용조건, 안전한 유지관리 및 보호 등 세부적인 조항들을 명백히 밝혀놓았습니다.

그러므로 정의와 평화를 사랑하는 인류의 념원에 전적으로 부합되며 앞으로 누구도 우리 핵무력에 대하여 시비하거나 의문시하지 못할것입니다.

우리식 사회주의의 전면적발전을 위한 력사적진군을 확고히 담보할수 있는 법적무기를 마련해놓은것은 올해에 이룩된 자랑찬 승리와 성과들과 더불어 전인민적인 투쟁기세를 비상히 앙양시키는데서 획기적인 계기로 됩니다.

올해 공화국정부앞에는 당 제8차대회가 제시한 5개년계획수행의 탄탄대로를 다져놓아야 할 중대한 과업이 나섰습니다.

이를 수행함에 있어서 그 어느 사업이나 미증유의 시련과 난관을 동반하였지만 우리의 투쟁은 더 과감하고 전진적이였으며 보다 소중한 결실들을 낳았습니다.

건국이래 처음 맞다든 위협적인 공공보건사태를 일심단결, 일심일체의 완강한 투쟁으로 짧은 기간에 극복하고 전국을 또다시 청결지대로 만들어 국가와 인민의 안전을 지켜낸것은 올해 우리가 쟁취한 커다란 승리로 됩니다.

온 세계의 의혹을 물리치고 전대미문의 방역대전을 승리적으로 속전속결함으로써 사회주의제도의 정치사상적위력과 우월성을 남김없이 과시하였으며 이는 온 나라 인민들에게 신심과 자부심을 더해주고 사회주의건설에 더욱 활력있게 분투해나서도록 적극 추동하였습니다.

최대의 방역위기상황에 자연재해까지 겹쳐들었지만 전체 인민이 추호의 비관과 락심, 공포와 절망도 없이 더욱 분기하여 당면한 영농사업들과 중요대상건설들을 비롯한 올해의 방대한 투쟁과업들을 완강하게 추진하여온것도 마땅히 자부해야 할 기적같은 성과들입니다.

자립경제의 기둥인 금속, 화학, 전력, 석탄, 철도운수를 비롯한 기간공업부문들과 인민생활향상과 직결된 여러 부문들에서도 공세적인 투쟁으로 생산계획수행에서 좋은 성과들을 거두었습니다.

경제사업을 비롯한 국가사업전반에 대한 통일적인 지휘와 관리가 더욱 심화되고 사회주의적성격이 복원되고있으며 수십년을 내다보는 전망적인 중장기적인 사업들이 설계, 추진되고있는것으로 하여 나라의 경제발전과 인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한 토대와 밑천들이 마련되고있습니다.

과학기술사업이 실용적인 계획과 목표에 따라 현실적문제해결에로 확고히 전환하고 나라의 교육사업이 균형적으로, 실지 쓸모있는 인재육성방향으로 발전하고있으며 보건부문에서 그 어떤 방역위기, 보건위기에도 대응할수 있는 귀중한 실천적경험을 마련한것을 비롯하여 올해에 들어와 사회주의문화건설에서도 의미있는 개진이 있었습니다.

올해 투쟁에서 이룩된 승리와 성과들은 우리 공화국이 모든 분야에서 주객관적도전들을 물리치며 침체와 답보, 좌절을 모르고 전면적발전, 전면적부흥에로 줄기차게 전진하고있음을 뚜렷이 실증해주고있습니다.

동지들!

자주와 정의의 기치를 더욱 높이 추켜든 우리 공화국은 시대와 력사앞에 중대한 사명을 걸머지고있으며 이는 보다 과감한 투쟁과 전진, 더 큰 승리를 요구합니다.

핵무력정책을 국법으로 고착시킨 우리 공화국의 정치적결단에 질겁한 온갖 반동세력들이 기필코 더 발악적으로, 악착스럽게 나오리라는것은 의심할바 없습니다.

위협과 공갈, 제재와 유혹의 상투적인 수법으로 언젠가는 우리의 핵무장을 완전해제시키고 우리 제도를 붕괴시킬수 있다고 망상하는 적대세력들의 체질적

본능이 개조되지 않는한 우리앞에 도사리고있는 도전과 장애는 절대로 가셔질수 없습니다.

세계는 사회주의강국에로 향한 우리 인민의 선택이 어떻게 지켜지는가, 조선이 자기의 결심을 어떻게 실천해나가는가, 이 땅에서 또 어떤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겠는가를 괄목할것입니다.

시련의 고비에서 더더욱 강해지고 승리에서 더 큰 승리를 이룩하며 끊임없이 발전하고 전진하는것은 우리 공화국이 지나온 로정에서 증명한 자기 고유의 특질입니다.

우리는 이 불변의 법칙대로 앞으로도 계속 강해져야 하며 우리가 선택한 한길에서 변침을 모르고 목적한 투쟁과업들을 무조건적으로, 완벽하게 수행해나가야 합니다.

오늘 공화국정부앞에는 당이 제시한 로선과 정책들을 철저히 견지하고 집행하면서 모든 분야에서 국가의 위상에 걸맞는 새로운 혁신과 발전들을 이룩해야 할 과업이 나서고있습니다.

국가방위력건설을 최우선, 최중대시하여 절대적힘을 무한대로 끌어올리고 공화국무장력을 더더욱 불패하게 만드는것은 우리 공화국정부앞에 나선 제1혁명과업입니다.

우리 나라의 지정학적특성과 전략적지위로 보나, 우리 혁명앞에 조성된 현정세로 보나 제국주의침략무력에 비한 우리 국가의 확고한 군사적우세는 필수불가결의 요구로 나섭니다.

최근년간 우리가 공개한 일정한 부문의 국방발전상을 보고 미구에 저들이 직면하게 될 커다란 위구감을 느낀 미국은 지금 극악한 제재봉쇄책동에 계속 매달리는 한편 조선반도주변에 저들의 핵공격무기들을 대대적으로 투입하면서 엄중한 협박성무력시위행동을 감행하고있습니다.

남조선 현 《정권》도 저들 군대의 군사적렬세를 만회하기 위해 우리를 억제한다는 강도적인 론리를 주장하며 《한미확장억제력》의 실행력을 높여 《한》미련합방위태세를 강화한다느니, 이른바 《한국형3축타격체계》를 구축하여 《억제력》과 《대응력》을 높인다느니 떠들면서 지역의 군사적긴장을 더 야기시키는 위험한 군사행동과 군비현대화놀음을 본격화하고있습니다.

제반 우려스러운 상황들은 우리 국가주변의 군사적정세가 장기성을 띠고 악화되고있다는것과 따라서 우리가 이에 철저히 준비되여있어야 한다는것을 말해줍니다.

그러나 적들의 책동으로 긴장격화된 정세는 오히려 우리에게 군사력을 더 빨리 비약시킬수 있는 훌륭한 조건과 환경 그리고 더 중요하게는 자위력강화의 정당성과 그 우선적강화의 불가피한 명분을 제공해주는것으로 되였습니다.

공화국의 국방성과 국방공업은 조성된 국면을 군력강화의 더없는 좋은 기회로 삼을것입니다.

우리의 국방공업은 당대회가 제시한 국방발전전략사상을 높이 받들고 자기의 계획적인 발전방향을 정확히 견지하면서 현대전에 상응한 새세대무장장비개발을 본격적으로 적극화해나가야 합니다.

가장 중요하게는 우리 핵무력의 전투적신뢰성과 작전운용의 효과성을 높일수 있게 전술핵운용공간을 부단히 확장하고 적용수단의 다양화를 더 높은 단계에서 실현하여 핵전투태세를 백방으로 강화해나가야 합니다.

또한 첨단전략전술무기체계들의 실전배비사업을 부단히 다그치며 나라의 전쟁억제력을 비상히 강화하기 위한 총력전을 다해나가야 합니다.

우리 국가특유의 정치사상적위력을 더욱 강화하고 모든 분야에서 남김없이 발양시켜나가야 하겠습니다.

전체 인민이 하나의 사상의지, 덕과 정으로 굳게 뭉쳐있고 조국의 부강번영에 이바지하기 위해 몸과 마음을 다 바쳐 일해나가는것은 우리 나라에만 고유한 우월성이며 이 땅의 모든 위대한 기적을 탄생시키는 원동력입니다.

우리식 사회주의의 불가항력적힘, 우리 국가의 제일가는 무기인 일심단결의 위력을 사상의지적으로, 도덕의리적으로 더욱 공고히 다져야 합니다.

우리 당의 인민대중제일주의정치를 국가사업전반에 참답게 구현하고 전체 인민이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서 정사에 적극 참가하도록 주권활동을 심화시켜야 합니다.

사회의 모든 성원들속에 우리 사상, 우리 제도, 우리 문화, 우리 생활이 제일이라는 긍지와 자부심을 깊이 심어주며 우리 사회의 집단주의기풍과 공산주의미덕, 미풍이 계속 높이 발휘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전체 인민이 국가의 리익, 공동의 리익을 먼저 생각하면서 공민적의무에 성실하고 나라의 발전과 번영을 위해 애국의 마음을 다 바치는 참된 사회주의근로자로 살며 투쟁해나갈 때 우리 조국은 언제나 끄떡없이 부강해질것입니다.

전체 인민들과 인민군장병들을 투철한 주적관, 대적관념을 지니고 사회주의조국을 굳건히 수호하는 계급의 전위투사, 전초병들로 준비시키는데 큰 힘을 넣어 우리의 정치사상진지, 계급진지를 튼튼히 다져야 합니다.

공화국정부는 국가경제발전의 5개년계획을 완수하고 그 성과를 다음단계에로 확대하기 위한 투쟁을 강력히 밀고나가야 하겠습니다.

5개년계획을 반드시 수행하여 우리식 사회주의의 전면적발전을 위한 토대를 확실하게 다지고 식량문제, 인민소비품문제를 비롯한 인민생활향상과 관련한 절실한 문제들을 원만히 푸는것은 공화국정부앞에 나선 가장 중요한 혁명과업입니다.

5개년계획은 나라의 경제사업실태와 현실적가능성에 토대하여 지속적인 경제상승과 인민생활의 뚜렷한 개선향상에로 나아가는것을 목표로 하고있습니다.

5개년계획이 완수되면 경제사업체계와 부문들사이의 련계, 자립적토대가 정비보강되여 나라의 경제전반이 장성궤도에 올라서게 될것이며 인민들의 식의주문제를 푸는데서 실제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될것입니다.

실지 지난 1년 8개월기간 정비보강전략에 따라 국가경제의 명맥과 전일성이 보다 강화되고 경제관리에서 불합리한 문제들이 적지 않게 바로잡히였으며 생산정상화와 개건현대화, 원료, 자재의 국산화가 적극 추진되고 특히는 평양시 5만세대 살림집건설과 지방건설, 농촌건설이 힘있게 전개되여 주택문제를 풀수 있는 확고한 전망이 펼쳐졌습니다.

당 제8차대회가 밝힌바와 같이 2025년말에 가서 2020년수준보다 국내총생산액은 1.4배이상, 인민소비품생산은 1.3배이상 장성하는것으로 보아도 5개년계획을 수행하는것은 나라의 경제발전과 인민생활향상을 추동하고 다음단계의 보다 거창한 투쟁에로 확신성있게 나갈수 있는 담보로 됩니다.

지금 우리앞에 조성된 경제적난관은 엄혹하지만 인민의 운명과 생활을 책임지고있는 공화국정부는 5개년계획수행을 위한 정확한 투쟁방향을 내세우고 강력히 조직집행하여 반드시 성공적인 결실들을 안아와야 합니다.

나라의 경제사령부인 내각이

경제사업전반을 철저히 장악하고 다같이 추진시켜나가는 방향에서 경제건설과 경제발전을 옳게 조정해나가야 하겠습니다.

내각은 나라의 경제사업을 총괄하는것만큼 인민경제전반을 동시적, 균형적으로 장성발전시키기 위한 작전과 지휘를 잘해나가는것이 중요합니다.

…

내각은 국가경제의 근간으로 되는 중요부문들에 힘을 넣으면서도 다른 경제부문과 인민생활전반에 대하여 다 관심하고 책임지며 돌보아야 합니다.

나라의 경제사업을 내각에 집중시키는 체계와 질서가 점점 강하게 세워지고있는데 맞게 생산활동, 경제활동의 전반적실태를 단단히 걷어쥐고 경제부문들사이의 유기적인 련계와 협동을 잘 지어주며 처지거나 뒤떨어지는 부문들을 추켜세우기 위한 실무적대책을 제때에 따라세워 국가경제사업의 균형성과 원활성, 효률성이 보장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식량문제와 인민소비품문제를 가까운 년간에 해결하기 위하여 농업생산과 경공업발전에 계속 주되는 힘을 넣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당과 정부의 경제정책은 다 인민들의 물질경제적수요를 원만히 충족시켜 그들에게 유족하고 부럼없는 생활을 안겨주기 위한것입니다.

우리가 일관하게 내밀고있는 사회주의건설도 말그대로 인민이 바라고 그려보는 리상사회를 일떠세우기 위한 투쟁으로서 그 투쟁이 심화될수록 인민들의 피부에 직접 가닿는 실질적인 결과물이 현실로 나타나야 합니다.

인민생활에서 기초적인 문제 하나 제대로 풀지 못하여 인민들이 계속 고생하게 만든다면 그런 경제사업은 아무리 해도 필요없습니다.

인민생활을 안정향상시키는데서 급선무로 나서는것은 먹는 문제, 소비품문제를 푸는것입니다.

5개년계획기간에 국가알곡생산계획을 무조건 수행하여 인민들에게 식량이 넉넉히 차례지도록 하며 경공업생산을 질량적으로 높여 필수소비품, 기초식품문제를 원만히 해결하여야 합니다.

그러자면 농사를 안전하게 짓고 생산성을 높이며 알곡생산구조를 바꾸고 량곡수매와 식량공급사업을 개선하는것이 중요한 과업으로 나섭니다.

농사조건과 환경이 점점 더 불리해질것이 예견되므로 여기에 대비할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여야 합니다.

기상기후의 변화에 구애됨이 없이 높고 안전한 알곡소출을 거둘수 있게 종자혁명을 비롯한 과학기술적대책을 세우는것을 농사에서 기본고리로 틀어쥐고나가며 전국이 총동원되여 농촌을 로력적으로 지원하고 한해 농사에 소요되는 영농물자들을 원만히 보장하여야 합니다.

특히 일군들이 불리한 기상기후조건을 기정사실화하고 농업생산전반을 따져보면서 그에 맞게 농사를 과학적으로, 계획적으로 지도하여야 합니다.

농업생산에서 편파성을 줄이고 안정도를 높일수 있는 중요한 방도의 하나는 관개시설을 복구, 완비하는데 있습니다.

온 나라가 달라붙어 마사지거나 로화된것은 복구정비하고 증설할것은 증설하면서 관개시설을 개건하기 위한 사업을 2~3년안에 무조건 끝내야 합니다.

올해부터 밀재배면적과 밀생산량을 늘이고있는데 앞으로 해마다 이를 계속 확대하는것과 함께 생산된 밀을 잘 보관, 가공처리하는 사업을 병행하여 인민들의 식생활구조를 개선하려는 당과 정부의 정책이 은을 나타내게 하여야 합니다.

…

새시대 농촌혁명강령을 받들고 농촌진흥을 다그쳐야 하겠습니다.

농촌진흥이자 곧 사회주의농촌문제해결이며 사회주의수호전입니다.

새시대 농촌혁명강령에 밝혀진바와 같이 농촌을 진흥시키는데서 선차적인 과업은 농업근로자들을 개명시키는것입니다.

농촌혁명의 주인인 농업근로자들의 의식수준을 개변시켜야 그들이 새시대 농촌혁명강령에 대한 옳바른 인식을 가지고 그 관철에서 핵심적이고 주동적인 역할을 할수 있으며 격변하는 시대의 요구에 맞게 사회주의농촌을 더욱 개화발전시키는데 적극 이바지할수 있습니다.

농업근로자들의 사상의식령역을 넓혀주자면 농촌에 선진성, 현대성을 접종하여야 합니다.

농업생산을 과학화, 현대화, 정보화하고 농산작업의 기계화를 높은 수준에서 실현하는것을 비롯하여 농업생산환경을 현대적으로 개변하기 위한 사업을 힘있게 밀고나감으로써 농업근로자들의 사상의식에서 변화가 일어나게 할뿐 아니라 모든 농촌을 부유한 농촌으로 전변시켜야 합니다.

살림집건설을 기본으로 지역적, 지대적특성에 맞게 농촌건설계획을 바로 정하고 단계별로 모가 나게 수행하여 우리 나라 농촌의 급속한 진흥이 실지 눈에 뜨이게, 농민들의 피부에 가닿도록 하여야 합니다.

나라의 수산업을 추켜세워 인민들에게 더 많은 물고기가 차례지게 하여야 합니다.

수산부문에서는 바다어로, 바다양식을 활발히 진행하는것과 함께 모든 강하천, 호수들에서 새끼물고기방류와 그물우리양어를 비롯한 여러가지 양어활동을 대대적으로 근기있게 벌려나가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것은 수산자원의 보호, 증식정형에 대한 조사를 과학적으로, 정상적으로 진행한데 기초하여 수산물생산을 계획적으로 늘여나가는것입니다.

소비품문제를 풀기 위한 경공업혁명에 박차를 가하여야 하겠습니다.

…

소비품의 질제고는 경공업혁명에서 종자이고 기본방향입니다.

당면한 계획수행에만 급급하면서 나날이 문명해지는 인민들의 요구와 지향을 외면하고 락후한 소비품을 계속 생산한다면 나라의 경공업실태는 악순환에 빠지게 되고 절대로 발전을 기대할수 없게 됩니다.

경공업부문에서는 과학자, 기술자, 로동자들의 시야를 넓혀주고 기술기능수준을 부단히 높이며 원료, 자재의 질적보장과 생산공정의 현대화, 품질감독사업에 대한 높은 요구성을 따라세우고 인민들의 평가를 기준으로 하여 소비품들의 질을 철저히 담보하여야 합니다.

전국의 지방공업을 추켜세워 지방이 변하고 자체로 발전하는 새시대를 열어나가야 하겠습니다.

모든 시, 군들의 지방공업공장들이 제구실을 하면 나라의 경제발전과 인민생활향상에서 적지 않은 문제들이 해결될수 있습니다.

김화군 지방공업공장들을 현대화하고 자체의 원료원천으로 군내수요를 보장해나가는 실천적경험을 전국의 시, 군들로 확대하는 사업을 강하게 추진하여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국가적으로 추진위원회를 내오고 설계와 시공을 비롯하여 시, 군 지방공업공장들을 현대화하기 위한 사업을

틀어쥐고 밀고나가도록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시, 군들의 능력이 약한것만큼 지방공업공장들을 현대적으로 꾸린 다음에는 제발로 걸어나갈수 있게 원자재보장대책을 세워주고 초기투자도 해주어야 합니다.

지방공업공장들에서도 제품의 질을 높이는데 선차적힘을 넣어 군내인민생활에 실질적으로 이바지하여야 하며 확대재생산을 하여 공장을 자체로 운영해나가야 합니다.

국가경제발전 5개년계획을 수행하는데서 기간공업부문이 응당 계속 기치를 들고 인민경제전반을 견인하여야 하겠습니다.

기간공업부문은 자립경제의 주추이고 기둥이며 이 부문에서 생산적앙양이 일어나야 인민경제전반이 용을 쓸수 있고 다음단계에로의 경제발전도 확고히 내다볼수 있는것입니다.

그래서 당과 정부는 금속공업과 화학공업을 추켜세우기 위하여 이미 많은 자금을 지출하였으며 전력공업을 비롯한 여러 기간공업부문들의 현대화와 능력확장, 생산정상화에 필요한 경제실무적대책들도 계속 세워나가자고 합니다.

금속공업과 화학공업을 비롯한 기간공업부문에서는 정비보강전략에 따르는 계획들을 완강하게 집행해나가면서 어떤 일이 있어도 생산계획을 드팀없이 수행하여 인민경제의 장성과 발전의 동력, 잠재력을 더욱 튼튼히 구축하여야 합니다.

특히 로력관리, 설비관리, 기술관리를 정상적으로 예견성있게 잘하여 각종 설비사고로 인한 경제적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며 국가적립장에서 생산소비적련계를 강화하여 기간공업부문이 원활하게 움직이도록 하여야 합니다.

인민경제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는 절약이자 증산이고 애국이라는 관점밑에 로력과 에네르기, 자재, 부지 등을 최대한 절약하면서 최대한의 실리를 얻을수 있게 경영관리, 기업관리를 개선하여 국가경제발전과 인민생활향상에 실지로 이바지하여야 합니다.

나라의 경제발전과 인민생활향상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전망적인 사업들을 설계작전하고 계획적으로, 단계별로 밀고나가야 하겠습니다.

나라의 경제형편이 어렵다고 하여 현행생산에만 급급하는것은 보신이고 후퇴이며 혁명을 하지 않겠다는 표현입니다.

모든 사업을 설사 그것이 크든 작든 먼 후날에 가서도 우리 후손들이 유감없이 향유할수 있도록 설계하고 작전하며 창조하는 것을 신조로 하여 투쟁해나가는 사람이 바로 참된 애국자입니다.

진정으로 인민을 위하고 조국의 부강번영을 위함이라면 원대한 리상과 목표를 내세워야 하며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을 동시에 완강히 밀고나가야 하는것입니다.

평양시 5만세대 살림집건설과 대규모온실농장건설들을 비롯하여 앞으로 우리 인민들에게 더 좋고 훌륭한 생활조건을 마련해주기 위한 사업들에 계속 큰 힘을 넣어야 합니다.

우리가 앞으로도 계속 통이 큰 건설대상들을 마음먹고 전개해나가자면 중앙과 지방들에 능력이 큰 건재생산기지들을 꾸리고 마감건재를 비롯한 질좋은 건재들을 자체로 생산보장하여야 합니다.

우리는 전망적인 대건설작전들을 끊임없이 펼치고 성과적으로 완결하는 투쟁을 통하여 인민의 세기적숙원이 하나하나 빛나게 실현되여나가는 우리 국가의 발전상과 양양한 전도를 과시하여야 합니다.

나라의 동서해를 련결하는 대운하건설을 비롯한 전망적인 경제사업들에 대한 과학적인 타산과 정확한 추진계획을 세우며 일단 시작한 다음에는 국가적인 힘을 넣어 반드시 성공을 안아와야 합니다.

현시기 공화국정부가 힘있게 추진해야 할 중대사는 국토관리사업과 재해방지를 위한 사업입니다.

날로 심각해지는 재해성이상기후의 영향으로 인한 막대한 인적, 물적피해는 지금 세계적인 난문제로 되고있으며 우리 나라에서도 해마다 재난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물을 다스리는것은 천기를 다스리는것이며 치수사업은 중장기적인 사업입니다.

지금 치수사업을 강바닥이나 파고 강기슭에 옹벽이나 쌓는것으로 그치고있는데 과학적인 중장기계획 다시말하여 치수전략을 세우고 실행해나가야 합니다.

나라의 강하천들의 물조절능력을 정확히 판정하고 그에 기초하여 완충지점들도 조성해놓으면서 수리조종체계를 완비하는것을 비롯하여 물관리를 과학화하여야 합니다.

…

자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국가적인 재해방지능력을 강화하는데 계속 큰 힘을 넣으며 당면하게는 큰물이 발생하는 경우 사람들을 구조하는데 필요한 력량과 기재를 모든 도, 시, 군들에 충분히 갖추어놓아야 합니다.

산림복구전투와 사방야계사업, 해안방조제공사, 도로개건을 비롯한 국토환경보호와 관리사업을 전국적범위에서 더욱 힘있게 다그쳐야 합니다.

동지들!

교육과 과학기술, 보건사업을 중시하고 그 발전에 힘을 넣는것은 공화국정부의 일관한 정책입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더 많은 인재, 실지 능력있는 인재들과 현실에서 걸린 문제들을 푸는데 이바지하는 과학기술성과들이 그 어느때보다도 절실히 요구됩니다.

공화국정부는 인재전략, 과학기술발전전략을 국가의 전면적부흥을 위한 핵심전략으로 내세우고 그 실현을 강력히 추진해나가야 하겠습니다.

지금 나라의 교육사업이 질적수준에 있어서 발전하는 세계적추세와 시대적요구에 따라서지 못하고있습니다.

교육의 목적이 실천능력을 갖춘 쓸모있는 인재들을 키워내는데 지향되지 못하고 순수 교육 그 자체를 위한 교육, 점수평가를 위한 교육으로만 국한되다보니 국가발전에 도움을 주지 못하고있습니다.

교육부문에서는 학생들이 실지 현실에서 써먹을수 있는 산지식을 더 많이 습득하는데 시간과 노력을 바칠수 있게 학과목을 바로 선정하는 사업을 잘하며 전반적12년제의무교육의 질을 결정적으로 높여 학생들의 실력을 월등하게 올려세워야 합니다.

김책공업종합대학을 비롯한 기술대학들의 교육수준을 부단히 제고하고 세계적수준으로 끌어올려 모든 졸업생들을 유능하고 쟁쟁한 과학기술인재로 키워야 합니다.

중앙과 지방의 모든 교원, 학생들에게 교육조건, 실습조건, 학습조건을 원만히 보장해주는데 국가적인 힘을 계속 넣어야 합니다.

과학기술의 수준과 역할을 높이고 기술인재자원을 효과있게 증진, 관리하여야 합니다.

…

과학기술을 발전시키자면 연구수단과 인재가 준비되여야 하는것만큼 국가적으로 항상 여기에 관심을 돌리고 이 문제를 풀기 위한 실속있는 대책을 취해나가야 합니다.

계속 강조하는바이지만 과학연구부문에서는 건수나 채우는 식의 태도를 철저히 경계하고 1년에 다문 몇건이라도 나라의 경제를 실지 들어올릴수 있는 온전한 과학기술성과를 내놓아야 합니다.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전민과학기술인재화의 중요한 거점인 과학기술보급기지들의 운영정형을 정상적으로 료해하고 실속있게 총화하면서 과학기술보급사업을 부단히 심화시켜 대중적기술혁신운동을 활성화하여야 합니다.

…

전국적으로 과학기술성과들을 공유하고 흡수, 통보하며 과학기술자료들의 열람조건을 잘 보장해주는 사업, 우수한 단위와 과학자, 기술자들을 우대, 평가하는 사업을 잘하여 온 사회에 과학기술중시기풍이 차넘치게 하여야 합니다.

우리 인민들의 생명건강을 보호증진시킬수 있게 의료봉사사업을 계속 개선해나가야 하겠습니다.

이번에 공공보건사태를 겪으면서 우리 보건의 현 실태가 전면적으로 평가되였으며 그 수준과 능력제고의 절박성이 더욱 립증되였습니다.

인민의 생명건강이 첫째라는 관점밑에 의료봉사사업에서 절실한 문제들부터 풀어나가야 합니다.

나라가 모든 의료품을 자체로 충당할수 없는 조건에서 인민들의 치료와 건강증진에 필요한 의료품들을 수입해서라도 원만히 대주어야 합니다.

이와 함께 필수의료품들을 비롯한 여러가지 약품들을 국내에서 생산보장할수 있게 제약공장들과 의료기구공장, 의료용소모품공장들의 신설, 현대화사업을 적극 추진하며 도, 시, 군병원들을 일신시키고 약국들을 표준대로 잘 꾸리기 위한 사업을 계획적으로 밀고나가야 합니다.

보건부문에서 모든 의사, 간호원들이 인간생명의 수호자로서의 자질과 공산주의적인 풍모를 지니도록 하여야 합니다.

이번 악성비루스박멸투쟁기간에 만사람을 감동시켰던 의료부문 일군들의 자기희생적인 헌신의 정신세계를 누구나 다 적극 따라배우도록 장려함으로써 《정성》이라는 두 글자를 뜨거운 심장으로 체득한 훌륭한 의료일군들을 나라의 그 어디서나 찾아볼수 있게 하여야 합니다.

의학과학기술을 세계선진수준으로 발전시키는데 힘을 넣으며 인민적이고 선진적이며 효률적인 의료봉사제도를 완비해나가야 합니다.

국가방역능력건설을 다그쳐야 하겠습니다.

현재도 그렇고 앞으로도 악성전염병들이 계속 발생할수 있는 여러가지 가능성이 존재하는것만큼 이는 한시도 지체할수 없는 국가중대사입니다.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5차전원회의와 전국비상방역총화회의에서 국가방역능력건설과 관련하여 제시된 과업들을 건별로 따져가면서 철저히 집행해나가야 합니다.

특히는 국가적으로 경내밖의 류동적인 전염병상황과 그 특성을 항상 긴장하게 주시하며 만약 그것이 류입되는 경우 즉시 발견하고 제압할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데 주목을 돌려야 합니다.

…

최근 세계보건기구와 여러 나라 보건전문기관들에서는 올겨울에 신형코로나비루스전파와 함께 위험한 돌림감기에도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경고하고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방역전문가들은 지난 5~6월에 악성전염병을 경과하면서 우리 사람들속에 형성되였던 항체력가가 10월경에는 떨어질것으로 보고있습니다.

때문에 왁찐접종을 책임적으로 실시하는것과 함께 11월에 들어서면서부터는 전 주민이 자체의 건강보호를 위해 마스크를 착용할것을 권고하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

동지들!

현 국제정세는 정의와 부정의, 진보와 반동사이의 모순, 특히 조선반도를 둘러싼 세력구도가 명백해지고 미국이 제창하는 일극세계로부터 다극세계로의 전환이 눈에 뜨이게 가속화되고있음을 보여주고있습니다.

우리 공화국은 현 국제정세의 발전추세와 자주강국의 지위에 맞게 대외관계를 주동적으로 발전시켜나갈것입니다.

대외사업부문에서는 우리 당의 존엄사수와 국위제고, 국익수호를 공화국외교의 제일사명으로 변함없이 틀어쥐고 국제관계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우리 혁명의 리익에 맞게 풀어나가야 합니다.

주변나라들과의 친선협조관계를 가일층 확대발전시키며 제국주의자들의 침략과 간섭, 지배와 예속을 반대배격하고 자주와 정의를 지향하는 모든 나라, 민족들과 사상과 제도의 차이에 관계없이 협조하면서 대외관계를 다각적으로 발전시켜야 합니다.

이와 함께 우리 나라를 존중하고 우호적으로 대하는 자본주의나라들과도 다방면적인 교류와 협력을 발전시켜나가기 위한 외교전을 모색하여야 합니다.

공화국정부앞에 나선 이상의 과업들을 관철하여 오늘의 자랑찬 승리를 사회주의건설의 더 큰 승리로 이어가자면 국가건설과 국가활동에서 당의 유일적령도체계를 철저히 확립하여야 합니다.

공화국정부는 당의 로선과 정책, 방침을 절대적기준으로 하여 모든 사업을 조직지휘하며 자기 활동을 당정책실현에로 확고히 지향시켜야 합니다.

모든 정부기관들이 당의 결정지시를 사소한 리유와 구실도 없이 무조건 받아들이고 그대로 집행해나가는 혁명적기풍을 강하게 세우며 제기되는 문제들을 당에 보고하고 결론에 따라 처리하는것을 어떤 경우에도 어길수 없는 철칙으로 삼아야 합니다.

인민정권기관들의 기능과 역할을 높여야 하겠습니다.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를 포괄하고있는 정권기관들의 사업은 대단히 복잡하고 방대하며 그만큼 임무와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모든 정권기관들은 자기 지역에서 존엄높은 공화국정권을 대표하고 인민들의 생활을 책임졌다는 사명감을 똑똑히 명심하고 자기의 본분을 충실히 수행해나가야 합니다.

자기 지역, 자기 단위앞에 부과된 당과 정부의 정책, 지시를 전적으로 맡아 철저히 집행하기 위한 작전과 지휘를 책임적으로 하며 기관, 기업소, 협동단체, 주민들의 사업과 활동이 원활하게, 효률적으로 진행되여나갈수 있는 조건과 환경을 적극 조성하여야 합니다.

당과 정부의 인민적시책들이 모든 아이들, 모든 세대들에 골고루 빠짐없이 가닿도록 헌신적노력을 기울이며 먹는물문제, 땔감문제를 비롯하여 인민들의 생활상문제들을 항상 알아보고 사소한 불편과 고충도 겪지 않도록 사전대책을 면밀히 세워나가야 합니다.

혁명의 지휘성원인 일군들이 비상한 사상적각오와 결심을 가지고 한결같이 분발, 분투하여야 하겠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일군들은 말그대로 심부름군이 되여야 합니다.

일군이라는 부름은 결코 그 어떤 명예나 직권이 아니며

인민에게 복무해야 할 본연의 사명을 떠나 일군의 존재가치에 대하여 생각할수 없습니다.

일군들이 편안하고 호의호식하면 벌써 그것은 사회주의가 아니며 인민들에게 더 큰 고생이 차례지게 됩니다.

모든 일군들은 자기 위치가 당과 혁명, 조국과 인민을 위해 더 무거운 짐을 지고 더 많은 고생을 해야 할 자리임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되며 잠시도 헛눈을 팔지 말고 항상 중압감속에서, 긴장된 책임의식속에서 자기 임무에 무한히 성실하여야 합니다.

새로운 일감이 제기되면 회피하거나 적당히 굼땔 생각을 할것이 아니라 솔선 온몸을 내대고 치밀하게 작전지휘하며 이 신작칙의 기풍으로 투신하면서 훌륭한 결실로 집행해나가야 합니다.

사업에서 책임성과 역할을 높이고 당과 인민앞에 떳떳한 모습으로 살기 위하여 자신들을 부단히 정신도덕적으로 수양단련하며 혁명밖에, 일밖에 모르고 맡은 본분을 손색없이 해나갈줄 아는 진짜 필요한 일군이 되여야 합니다.

…

대의원동지들!

우리는 이제 곧 영광스러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창건 74돐을 맞이하게 됩니다.

뜻깊은 이날을 맞으며 우리 공화국은 존엄높은 자주강국의 위상을 더욱 뚜렷이 과시하는 또 하나의 특대사변을 자기의 긍지높은 력사에 찬연히 아로새기였습니다.

우리의 숭고한 리념, 우리의 성스러운 위업이 성공과 승리의 더 높은 단상으로 오를수록 우리는 더 큰 시련과 역경을 맞받아 뚫고나가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투쟁은 류례없는 극난을 동반하고있으며 이제 우리 앞길에 또 어떤 도전이 막아설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공화국은 추호의 주춤과 동요도 없이 분명코 전진하고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전진하며 더욱 강해질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위업도, 우리의 사상도, 우리의 로선도 모두 정의이고 진리이며 우리에게는 이 세상 그 누구도 깨뜨리지 못할 당과 인민대중이 억척으로 결합된 일심단결의 위대한 힘이 있기때문입니다.

동지들!

승리는 반드시 우리의것이며 우리모두가 분발하고 또 분발할수록 그 승리는 더 빨리 앞당겨질것입니다.

모두다 한마음한뜻으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의 두리에 굳게 단결하여 사랑하는 어머니 우리 공화국의 무궁한 번영을 위하여, 위대한 우리 인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우리식 사회주의의 승리적전진을 위하여 더욱 힘차게 싸워나아갑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만세!

* *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74돐 경축행사 성황리에 진행

자주로 존엄떨치고 자립, 자력으로 사회주의조국을 빛내여 가는 긍지와 자부심을 안고사는 수천만 조선인민은 주체의 건국대업이 성취된 날을 가장 뜻깊고도 성대하게 기념하였다.

9월 8일 밤 사회주의국가건설위업의 개척자이시며 령도자이신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동상이 숭엄히 모셔져있는 수도 평양의 유서깊은 만수대기슭에서 영광스러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74돐 경축행사가 대성황리에 진행되였다.

만수대의사당과 인민극장사이에 특색있게 마련된 드넓은 경축행사장은 위대한 우리 국가의 탄생일을 기념하기 위하여 모여온 수도의 각계층 시민들과 청년학생들로 인산인해를 이루고있었다.

먼저 경축행사의 서막을 이채롭게 장식하며 항공륙전병의 강하기교와 전투비행대들의 기교비행이 진행되였다.

밤하늘을 기세차게 썰며 여러가지 난도높은 비행동작들을 훌륭히 수행하면서 황홀한 축포탄들을 쏘아올리고 부채살모양의 령롱한 비행운을 새기는 영용한 비행대들을 향해 관중은 열정넘친 환호와 박수를 보내였다.

환영곡이 울리는 가운데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리설주녀사와 함께 경축행사장에 나오시였다.

순간 전체 참가자들은 천리혜안의 예지와 강철의 신념, 걸출한 령도력으로 강국의 새시대를 열어놓으시고 공화국의 영예와 국력을 최상의 경지에서 빛내여가시는 주체혁명의 탁월한 령도자이시며 공화국의 강대성

의 상징이시며 모든 승리와 영광의 기치이신 **김정은**동지께 드리는 최대의 경의를 담아 폭풍같은 《만세!》의 환호를 터쳐올리였다.

김정은동지께와 리설주녀사께 소년단원들이 향기그윽한 꽃다발을 드리였다.

경축행사에는 당과 정부, 군부에서 오랜 기간 사업하여온 로간부들이 초대되였다.

당과 정부, 군부의 간부들과 최고인민회의 대의원들, 경축행사참가자들, 성, 중앙기관 일군들, 혁명학원 학생들, 평양시민들이 함께 참가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74돐 경축행사 성황리에 진행

노래 《우리의 국기》의 숭엄한 선률이 울리는 속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의사당의 기발게양대에 국기를 게양하는 의식이 엄숙히 거행되였다.

강국의 국기가 펄펄 나붓기는 9월의 하늘가에 경축의 축포가 터져올랐다.

전체 조선인민의 총의에 의하여 수립되고 절대적인 지지와 신뢰속에 영원불패의 위력을 떨쳐가는 공화국정권의 위상을 비껴안고 수도의 한복판에 로동당시대의 대기념비로 거연한 만수대의사당을 배경으로 대공연이 시작되였다.

예술인들은 공화국의 건국과 발전행로에 높이 울린 어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74돐 경축행사 성황리에 진행

니조국에 드리는 인민의 노래, 사회주의찬가, 로동당송가들을 새롭게 창조형상하여 공연무대를 펼치였다.

민족사상 처음으로 진정한 자주독립국가의 주인된 인민의 크나큰 긍지와 환희를 담아싣고 삼천리강산을 진감하던 《인민공화국선포의 노래》와 불멸의 송가 《**김일성**원수께 드리는 노래》가 장중하게 울리였다.

출연자들은 불멸의 노래들을 통하여 인민대중중심의 국가건설위업을 개척하시고 우리 조국을 자주, 자립, 자위의 사회주의국가로 일떠세워주신 위대한 수령님의 영원불멸할 업적을 격조높이 칭송하였다.

이민위천의 반석우에 주체혁명의 산아로 솟아올라 승리와 영광만을 떨쳐온 공화국의 무진한 힘의 원천을 구가한 설화시 《빛나는 조국》이 숭엄한 격정, 고귀한 추억을 불러오며 뜨겁게 메아리쳤다.

위대한 단결과 전진, 승리전통에 대한 무한한 자부로 충만된 공연의 분위기를 승화시키며 조선로동당에 대한 송가들과 애국주의주제의 명곡들이 련이어 무대에 올라 우리 공화국의 민족사적인 대승리와 세기적변혁을 현명하게 인도하여온 우리 당의 위대성을 칭송하며 경축행사장을 무한히 격동시켰다.

축포탄들이 련이어 터져올라 경축의 밤하늘에 황홀하게 부서져내리며 일만경을 펼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참가자들의 열광의 환호에 따뜻이 답례하시며 격려의 인사를 보내시고 몸소 무대에 오르시여 출연자들과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　　*　　*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공화국창건 74돐 경축행사에 참가한 로력혁신자, 공로자들을 만나시고 축하격려해주시였다

존엄높은 우리 국가의 창건자, 건설자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동상이 정중히 모셔져있는 만수대언덕에서 기념사진을 찍는 인생의 가장 값높은 영광을 지니게 된 감격과 환희가 참가자들의 가슴마다에 세차게 끓어번지고있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도착하시자 전체 참가자들은 열화같은 《만세!》의 환호를 터치며 근로하는 인민의 삶과 투쟁을 행복과 명예의 단상에 긍지높이 내세워주시는 우리 원수님을 눈물속에 우러르며 고마움의 인사를 올리고 또 올리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참가자들에게 따뜻한 인사를 보내시며 사회주의 우리 국가의 부강발전에 공헌한 남다른 자랑과 긍지를 안고 공화국창건 경축행사에 초대된 로력혁신자, 공로자들을 축하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우리 당과 정부는 어머니조국을 위하여 성실하게 바쳐가는 근로인민의 애국의 구슬땀과 순결한 량심을 천만금보다 더 귀중하게 여긴다고 하시면서 향유의 권리보다 공민적의무를 앞에 놓고 나라의 큰 짐을 하나라도 덜기 위해 고심하고 분투하는 로력혁신자, 공로자들이야말로 진정한 인민의 대표자, 참된 애국자들이라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당과 국가의 로선과 정책을 절대의 진리로 간직하고 견인불발의 노력을 경주하며 초소와 일터마다에서 사회주의수호의 전위, 새로운 혁신의 창조자로 핵심적, 선구자적역할을 다하고있는 애국적인 근로자들의 고결한 인생관과 공적을 높이 평가해주시면서 로력혁신자, 공로자들과 뜻깊은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와 존경하는 리설주녀사를 모시고 만수대의사당 정원에서는 로력혁신자, 공로자들을 위한 성대한 연회가 진행되였다.

김덕훈동지, 조용원동지, 최룡해동지, 박정천동지, 리병철동지를 비롯한 당과 정부, 군부의 간부들이 뜻깊은 자리를 같이하였다.

연회에서는 축하연설이 있었다.

위대한 어버이의 품에 안겨 한식솔의 정을 나누는 감동깊은 화폭이 펼쳐진 연회장에 꿈같은 행복의 시간을 보내는 참가자들의 기쁨이 차넘쳤다.

김정은동지께서는 나라의 부강발전과 인민의 복리를 위해 헌신하고있는 로력혁신자, 공로자들의 건강과 사업성과를 헤아려주시며 따뜻이 고무격려해주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우리 국가의 강대함은 위대한 인민의 진함없는 애국의 열정과 피타는 노력과 심혼이 깃든 하나하나의 창조물과 사업성과에 의하여 안받침된다고 하시면서 참가자들이 앞으로도 조국과 인민이 긍지높이 자랑하고 내세우는 시대의 선구자로 영예로운 삶을 빛내여가리라는 기대를 표명하시였다.

전체 참가자들은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 안겨주신 육친의 정과 크나큰 믿음을 한생의 제일재부로 간직하고 인민의 영원한 보금자리인 어머니조국의 부강발전을 위하여 일심전력, 결사분투해나갈 충성과 보답의 맹세로 충만되여있었다.

*　　*　　*

인민대중제일주의를 정치리념으로 내세우시고

당과 국가를 이끄는 령도자가 어떤 정치리념을 내세우는가 하는것은 참으로 중대한 문제이다. 그것은 령도자의 정치리념이 당과 국가의 존립과 발전을 좌우하는 근본요인으로 되기때문이다.

령도의 라침판과 같은 정치리념이 얼마나 정확한가를 가르는 시금석은 인민대중에게 있다. 인민의 절대적인 공감과 지지를 받는 정치리념이야말로 가장 과학적이며 정당한 것이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인민대중제일주의를 확고한 정치리념으로 내세우시고 빛나게 구현해나가고계신다. 그이께서 내세우신 인민대중제일주의의 정치리념이야말로 온 나라 전체 인민이 열렬히 공감하고 지지하며 끝없이 감복하는 위대한 사상이다.

새로운 주체100년대가 시작된 그해의 1월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일군들은 수령님식, 장군님식인민관을 따라배워 인민을 하늘처럼 여기고 인민들에게 행복하고 유족한 생활을 마련해주기 위하여 발이 닳도록 뛰고 또 뛰여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그날 그이께서는 인민을 위하여 한생을 바쳐오신 장군님을 생각하면 우리 인민들이 장군님의 영상으로 안겨온다고, 우리는 인민을 위해서는 그 무엇도 아끼지 말아야 하며 할수 있는 모든것을 다하여 장군님을 모시듯이 우리 인민들을 받들어야 한다고 뜻깊은 말씀을 하시였다.

인민을 가장 힘있고 귀중한 존재로 보시기에, 인민에 대한 사랑이 그처럼 굳건하고 강렬하시기에 그이께서는 인민대중제일주의의 정치리념을 자신의 확고부동한 신조로 간직하신것이다.

이 억척불변의 의지를 안으시고 그이께서는 인민사랑의 숭고한 뜻을 빛나는 현실로 꽃피우시기 위하여 심혈과 로고를 다 바치고계신다.

- 인민을 국가주권의 주인으로, 인민의 의사와 요구를 국책으로 -

나라의 천사만사를 돌보시는 그처럼 분망하신 속에서도 그이께서 심원한 사색의 세계를 펼쳐가시며 정력적으로 벌리신 사상리론활동은 인민대중제일주의사상을 더욱 숭고한 경지에로 승화발전시키였다.

《인민대중에 대한 멸사복무는 조선로동당의 존재방식이며 불패의 힘의 원천이다》를 비롯한 그이께서 발표하신 불후의 고전적로작들에는 인민대중제일주의를 당과 국가활동,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 철저히 구현하여 하루빨리 이 땅우에 인민의 모든 꿈과 리상을 꽃피우시려는 절세위인의 웅건한 뜻과 불같은 열망이 력력히 어리여있다.

조선로동당 제4차 세포비서대회의 뜻깊은 연단에서 그이께서는 **김일성-김정일**주의는 본질에 있어서 인민대중제일주의이며 인민을 하늘처럼 숭배하고 인민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복무하는 사람이 바로 참다운 **김일성-김정일**주의자이라고 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중요당회의들과 뜻깊은 신년사들에서 그리고 여러 기회들을 통하여 인민대중제일주의사상을 구현한 로선과 정책, 혁명적구호들을 제시하시여 사회주의건설을 더욱 힘있게 추동하는 불멸의 지침을 마련해주시였다.

조선로동당 제4차 세포비서대회에서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을 모시는것처럼 우리 인민을 받들고 인민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치시려는 그이의 확고부동한 결심과 의지가 력사의 메아리로 힘있게 울려퍼지였다.

《전당이 위대한 인민을 위하여 멸사복무하자!》라는 구호가 제시된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에서 그이께서는 인민들의 리익과 편의를 최우선, 절대시하는것을 철칙으로 삼아야 한다고 하시였다.

조선로동당을 **김일성-김정일**주의당으로 강화발전시키며 전당에 인민을 위하여 멸사복무하는 당풍을 더욱 철저히 확립하는데서 새로운 전환적계기로 된 제1차 전당초급당위원장대회와 조선로동당 제5차 세포위원장대회…

력사적인 당 제8차대회의

- 현대적인 문화정서생활기지들 -

- 인민생활향상을 위하여 -

높은 연단에서 그이께서는 우리 당은 지난날과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언제나 변함없이 인민대중제일주의에 무한히 충실할것이며 사회주의건설에서의 부단한 새로운 승리를 쟁취하기 위함에 전력을 다해나갈것이라고 엄숙히 선언하시였다.

그이의 맹약에서 조국인민은 인민대중제일주의기치높이 인민을 위한 멸사복무, 위민헌신의 길을 끝까지 가고 가실 절세위인의 드팀없는 결심과 의지를 더욱 깊이 절감하였다.

돌우에도 꽃을 피울 지극한 열과 정을 인민들에게 끝없이 부어주시며 천만고생을 스스로 떠맡아안으시고 억만자루 품도 아낌없이 바치신 그이이시다.

그이의 불같은 정과 사랑은 격정없이 대할수 없는 화폭들을 이 땅우에 끝없이 펼치였다.

조국의 북변 한끝에 사는 라선땅인민들을 찾아 이어가셨던 수천리의 령길, 바다길, 하늘길, 쏟아지는 흰눈을 고스란히 맞으시며 인민의 리상향을 그려주신 삼지연시의 현지지도길과 작은 배에서 내리시여 바다물에 옷자락을 화락하니 적시시였던 부두도 잔교도 없는 이름없는 기슭, 저 섬에는 사랑하는 인민들이 있다고,

- 인민의 편의와 생명안전을 제일중대사로 -

그들이 나를 부르는 소리가 들려오는것만 같다고 하시며 끝끝내 이어가신 신도군에로의 바다길…

그렇게 이어가신 멸사복무의 줄기찬 려정에서 그이께서는 조선로동당을 인민을 위하여 멸사복무하는 진정한 어머니당으로 강화발전시키시였다.

《모든것을 인민을 위하여, 모든것을 인민대중에게 의거하여!》라는 구호가 당활동의 근본지침으로 되였고 당의 로선과 정책에는 인민의 지향과 혁명발전의 합법칙적요구가 정확히 반영되게 되였다.

인민을 하늘처럼 떠받들고 섬기시는 그이의 숭고한 사상과 투철한 복무정신에서 모든 일군들은 인민의 참된 복무자, 충복의 참의미가 무엇인가를 심장으로 절감하였으며 인민의 충직한 아들딸로 살며 일해나갈 멸사복무의 각오를 더욱 굳게 가다듬게 되였다.

자신에게는 영웅칭호도 훈장도 필요없다고, 이를 악물고 허를 깨물면서라도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께서 한평생 로고를 바쳐 키우신 우리 인민을 위해 더 많은 일을 하려고 한다시며 강인한 의지로 현지지도의 길을 쉬임없이 이어가신 경애하는 총비서동지이시다.

당을 따라 만난시련을 헤쳐온 조국인민에게 하루빨리 세상에 부럼없는 생활을 안겨주시려 그리도 마음기울이시는 그이의 불같은 사색과 심혈, 다심한 정과 세심한 손길은 온 나라 방방곡곡에 일떠선 황홀한 새 거리들과 인민의 문화휴식터들, 인민소비품들과 아이들의 학용품에 이르기까지 이 땅의 크고작은 재부들마다에 력력히 깃들어있다.

실로 그이께서는 위민헌신의 장정을 끝없이 이어가시며 조국의 땅과 바다, 하늘에 《인민》이라는 두 글자를 장엄하게 새겨놓으시였다.

경애하는 총비서동지의 인민에 대한 믿음, 이는 곧 그이의 심중에 억척같이 세워진 신념의 기둥이고 샘처럼 솟구치는 무한한 열정의 원천이며 불길처럼 타오는 사랑의 열원이다.

본사기자

일 화

위민헌신의 나날에

교과서적인 공장이라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평양곡산공장을 현지지도하신 주체105(2016)년 6월 15일은 많은 비가 내린 날이였다. 하지만 공장을 돌아보시는 그이의 만면에는 시종 환한 미소가 어려있었다.

타일들로 산뜻하게 장식된 건물들이며 드넓은 공장구내로 쭉쭉 뻗어나간 포장도로, 자동화, 흐름선화, 무균화, 무진화가 실현된 모든 생산공정들…

그이께서는 일군들에게 평양곡산공장은 세상에 내놓고 자랑할만한 공장이라고, 이 공장은 주체화의 기치를 높이 들고나가는 본보기공장, 자력자강의 창조대전에서 표준으로 내세울만한 공장, 현대화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가르쳐주는 교과서적인 공장이라고 높이 평가해주시였다.

이날 그이께서는 일군들에게 우리는 공장을 현대화하여도 최대한 우리의 힘, 우리의 기술, 우리의 지혜로 하여야 한다는 뜻깊은 말씀을 하시였다.

속옷과 겉옷이 우리것

주체101(2012)년 9월 어느 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천리마타일공장을 돌아보시였다.

공장의 종업원들이 자체의 힘과 기술로 일떠세운 2단계생산건물을 돌아보신 그이께서는 1단계생산공정으로 걸음을 옮기시였다.

공장일군들이 그이를 모시고 바닥타일직장에 도착하였을 때 바닥타일흐름선에서는 여러가지 타일들이 줄줄이 생산되여 나오고있었다.

그 광경을 만족스럽게 지켜보시는 그이께 공장일군이 공장에서 바닥타일흐름선을 바닥타일뿐 아니라 자기기와도 만들수 있도록 다기능화하였으며 중요대상건설장들에 타일제품들을 많이 보내준데 대하여 보고드리였다.

밝은 미소속에 일군의 이야기를 다 들어주신 그이께서는 이 공장에서 생산한 타일을 창전거리건설장과 릉라인민유원지건설장을 비롯한 중요대상건설장들에 많이 보내주었다고 하는데 우리가 마음먹은대로 설계하고 일떠세운 건물들에 우리가 만든 타일을 붙일수 있게 되였으니 얼마나 긍지가 있는가고, 사람들이 입는 옷에 비유하면 속옷과 겉옷이 모두 우리것이 된셈이라고 기쁨에 넘쳐 말씀하시였다.

속옷과 겉옷이 모두 우리것!

그이의 이 말씀에는 자력갱생에 참된 애국의 길이 있다는 깊은 뜻이 담겨져있었다.

강원도정신의 창조자

주체105(2016)년 12월 어느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찬바람을 맞으시며 원산군민발전소를 찾으시였다.

그이께서는 원산군민발전소의 언제를 보고 또 보시였다.

그이께서는 언제에 새긴 《자력갱생》이라는 글발을 보니 힘이 난다고, 원산군민발전소 언제는 자력갱생만이 살길이며 자력자강을 원동력으로 하여 투쟁할 때 못해낼 일이 없다는것을 뚜렷이 실증해주고있다고, 당의 두리에 굳게 뭉쳐 우리의 힘, 우리의 기술, 우리의 자원으로 사회주의강국을 기어이 일떠세우려는 우리 인민의 전진을 가로막을자는 이 세상에 없다고 힘주어 말씀하시였다.

이날 그이께서는 강원땅에 발전능력이 큰 수력발전소를 또 하나 일떠세운 강원도의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자강력제일주의의 위대한 생활력을 실천으로 증명한 불굴의 투사들이라고 하시면서 그들을 강원도정신의 창조자라고 불러주시며 강원도인민들의 투쟁정신, 강원도정신을 온 나라가 따라배울데 대한 최상최대의 믿음을 안겨주시였다.

본사기자

수 기

언제나 마음에 안고삽니다

김정숙평양방직공장은 인민생활과 직결되여있는 공장입니다.

이런것으로 하여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여러 차례 찾아오시여 평도의 자욱을 새기시였습니다.

주체102(2013)년 10월 처음으로 우리 공장에 찾아오신 그이께서는 방직설비들의 고속도화와 생산공정의 현대화를 계속 높은 수준에서 실현하여 질좋은 옷감과 각종 천들을 더 많이 생산해야 한다고 절절히 말씀하시였으며 그 다음해에 찾아오시여서는 학생교복천생산에 힘을 집중해야 한다고 당부하시였습니다.

그이의 현지지도의 날자들은 서로 다르지만 그날들에 하신 말씀들에 관통되여있는 기본핵은 단 하나 인민생활향상이였습니다.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그날은 대한추위는 지났지만 추운 날씨가 계속되던 주체105(2016)년 1월말이였습니다.

공장에서 가방용천생산기지를 새로 꾸리고 본격적인 생산에 들어갔다는 보고를 받으신 그이께서는 우리 공장에 나오시였습니다. 먼저 공장에서 생산한 가방용천을 가지고 만든 여러가지 학생용가방들을 보신 그이께서는 못내 기뻐하시였습니다.

사실 가방용천생산공정은 그이께서 주체103(2014)년 12월에 오시였을 때 과업을 주신것입니다.

그날 그이께서는 학생소년들의 교복과 신발, 학용품, 가방문제를 당에서 전적으로 맡아 풀겠다고 하시면서 공장

에 현대적인 가방용천생산공정을 새로 꾸릴데 대한 과업을 제시하시고 이를 실행하는데서 나서는 문제들을 풀어주시였습니다.

그런데도 그이께서는 맡겨진 생산계획을 넘쳐 수행하면서도 당의 의도대로 현대적인 가방용천생산기지를 꾸리느라 수고들이 많았다고 오히려 우리들의 수고를 헤아려주시였습니다.

그이께서는 자식들의 가방을 마련해주는 어머니의 심정으로 가방들을 만져도 보시고 천질도 가늠해보시였습니다.

그러시면서 학생용가방들이 볼수록 멋있다고, 형태와 색갈이 다양할뿐 아니라 편리성, 기능성, 미학성 등 모든 측면에서 다른 나라의 제품들과 당당히 견줄수 있다고 말씀하시였습니다.

그이의 모습은 자식들을 잘 입히고 내세우는데서 기쁨을 찾는 어머니의 모습그대로였습니다.

하기에 그이께서는 공장에 능력이 대단히 큰 가방용천생산공정이 꾸려진데 맞게 학생들의 책가방은 물론 인민생활에 필요한 여러가지 질좋고 다양한 형태의 가방들을 대량생산하기 위한 경제조직사업을 하여야 한다고 거듭 말씀하시였습니다.

정말 인민들에게 생활상혜택이 한가지라도 더 차례지는데서 늘 기쁨을 찾으시는 그이이십니다. 인민의 기쁨은 그이의 기쁨이였고 그이의 보람이였습니다.

하기에 그이께서는 인민들에게 더 큰 기쁨을 안겨주시기 위하여 우리 공장뿐 아니라 인민생활과 직결된 여러 공장들을 찾아 현지지도의 길을 끝없이 걸고계시는것입니다.

오늘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5차전원회의 결정관철을 위한 사업에서 우리 공장이 맡고있는 임무는 대단히 무겁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 안겨주신 그날의 그 믿음을 가슴깊이 간직하고 분발해나갈것입니다.

경애하는 총비서동지의 그 믿음은 종업원모두를 기적창조로 떠미는 자양분입니다.

김정숙평양방직공장
지배인 리용근

인민과 함께 승리해온 력사

《ㅌ.ㄷ》에서 시작된 조선혁명의 대하는 영광스러운 조선로동당의 력사와 더불어 끝없이 흐를것이다.

《ㅌ.ㄷ》에 억센 뿌리를 둔 조선로동당이 창건된 때로부터 77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

그 나날속에 새겨진 조선로동당의 력사는 승리와 영광으로 수놓아져있다.

돌이켜보면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주체15(1926)년 10월 17일 주체형의 첫 전위조직인 타도제국주의동맹(략칭《ㅌ.ㄷ》)을 결성하시여 주체혁명위업의 시원을 열어놓으시였다.

《ㅌ.ㄷ》의 결성, 그것은 자기 힘을 믿고 자기식으로 조국의 해방과 민족의 번영을 이룩하시려는 위대한 수령님의 투철한 자주독립정신의 발현이였다.

바로 이때부터 조선인민의 자주의 력사가 시작되였으며 줄기차게 발전하게 되였다.

이렇듯 《ㅌ.ㄷ》에 뿌리를 두고 장구한 력사의 로정을 이어가고있는 조선로동당의 력사는 세월의 만단사연이 새겨진 두터운 기록장이나 박물관의 전시대우에만 있는것이 아니다. 그것은 당의 령도를 받으며 투쟁하는것을 최대의 영광, 최대의 행운으로 여기고있는 소박하고 성실하며 참된 인간들인 이 나라 인민들의 마음속에 그대로 비껴있다.

해방후 《ㅌ.ㄷ》의 전통을 이은 조선로동당을 창건하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광범한 대중을 당의 두리에 묶어세워 지난날 억압받고 천대받던 인민대중을 력사의 주인으로 내세워주시고 그들모두를 새 조국건설에로 힘있게 이끌어주시였다.

원자탄을 들고 덤벼드는 침략자들을 보병총으로 물리쳐야 했던 가렬처절한 조국해방전쟁시기 조선로동당은 항일의 총대로 찾은 조국을 반미의 총대로 사수하기 위한 성스러운 수호전에로 전체 인민을 불러일으켰다. 당의 전투적호소를 심장으로 받든 조선인민과 인민군장병들은 불타는 고지와 후방에서 영웅하게 싸워 위대한 전승을 안아오고야말았다.

조선로동당은 벽돌 한장 성한것이 없는 재더미우에서 복구건설을 해야 했던 전후복구건설시기에 언제나 인민들속에 들어가 그들의 의사와 요구를 당의 로선과 정책에 담았다. 인민은 그것을 한마음한뜻으로 받들어 세인을 놀래우는 기적을 창조하였다.

나라앞에 조성된 정세와 환경은 년대마다 같지 않았지만 당의 두리에 사상의지적으로, 도덕의리적으로 굳게 뭉친 인민은 당에서 대고조를 호소하면 천리마를 타고 호응했고 대건설을 작전하면 속도전으로 화답하며 당의 결심을 물불을 가림없이 실천해내고야말았다. 조선로동당의 력사에는 사면팔방에서 떼를 지어 조국을 압살하려고 책동하는 제국주의자들과 맞서싸워야 했던 고난의 년대도 있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사회주의조국을 지켜주시려, 맑고 푸른 하늘만을 인민에게 펼쳐주시려 천만고생을 겪으시며 선군장정의 험난한 길을 헤쳐가시였다.

그 길에서 조국과 인민의 운명이 수호되였고 사회주의강국건설의 토대가 마련되였다.

조국앞에 전쟁의 불구름이 밀려들 때 피난의 보짐이 아니라 조국보위의 성전에 떨쳐나선 인민, 극악한 제재가 가해질 때에도 주체의 쇠물을 뽑고 비행기며 지하전동차를 만들어내며 사회주의를 지켜온 인민의 정신력, 이것이 바로 그 어떤 전략무기에도 비길수 없는 무진막강한 조선로동당의 힘의 원천이였다.

오늘도 제국주의자들의 끈질긴 제재와 련이은 자연재해, 세계를 휩쓰는 악성비루스전염병등으로 하여 시련이 겹쌓이고있지만 조선로동당은 인민대중제일주의를 당건설과 당활동의 근본리념으로 내세우고 정력적인 헌신으로 인민사랑의 서사시를 수놓아가고있다.

2년전 함경남북도가 혹심한 태풍피해를 입었을 때였다. 조선로동당은 최정예수도당원사단을 별동대로 급파하였다.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10월 10일이 눈앞에 박두하였는데 형편이 곤난하고 시간이 촉박하다고 하여 피해를 입은 함경남북도의 수많은 인민들이 한지에서 명절을 쇠게 할수는 없다고 하시였다. 그러시면서 당의 걱정과 보살핌의 손길로, 수도 평양의 따뜻한 정으로 피해지역 인민들을 극진히 위로하고 한시바삐 재난을 털어버리도록 정성다해 지원하고 투쟁할것을 당중앙은 수도당원동지들에게 호소한다고 하시였다.

당의 부름에 화답하여 현지로 달려나간 수도당원사단의 전투원들은 단순히 무너진 집을 다시 짓는 건설자가 아니였다. 그들은 땅우에는 인민의 행복의 웃음꽃이 피여날 정든 보금자리를 세웠지만 인민의 마음속에는 더욱 억척같이 다져지는 일심단결의 성새를 쌓고쌓았다.

이렇듯 거룩하고 위대한 당, 로숙하고 세련된 조선로동당의 영광스러운 력사이건만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인민의 운명을 책임지고 승리의 한길로 향도하는 불패의 당의 력사를 당을 믿고 따르는 인민의 력사로 총화하시였다.

언제인가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우리 당의 력사는 곧 인민이 걸어온 길이고, 우리 당의 힘은 곧 인민의 힘이며 우리 당의 위대함은 곧 인민의 위대함이고 우리 당이 이룩한 승리는 위대한 우리 인민의 승리이라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소박하고 근면하며 정의롭고 용감한 인민, 신념과 의지가 굳센 인민과 팔을 끼고 어깨를 겯고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생사운명을 함께 하며 혁명을 해나가는 한없는 긍지와 자부심에 넘치신 그이의 말씀을 심장마다에 새겨안으며 조국인민 누구나 크나큰 감격에 설레이였다.

조선로동당의 력사, 이는 곧 당과 운명을 함께 하며 걸어온 조선인민의 승리의 력사이다.

《ㅌ.ㄷ》에서 시작된 조선혁명의 대하는 근 한세기라는 장구한 격류속에 산천도 변하고 세대도 여러번 바뀌였지만 조선로동당의 력사와 더불어 끝없이 흐를것이다.

본사기자 연옥

불같은 헌신으로 수놓아오신 로정

조선로동당이 창건된 때로부터 77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

그 기간 조선로동당은 세계최장의 사회주의집권당력사를 가진 강위력한 당으로, 혼연일체, 일심단결로 승승장구하는 불패의 당으로 강화발전되였다.

이러한 현실은 당의 강화발전을 위해 바쳐오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불같은 헌신을 떠나서 생각할수 없다.

지금으로부터 25년전인 주체86(1997)년 10월 8일 위대한 장군님께서 조선로동당 총비서로 높이 추대되신것은 당과 혁명발전에서 중대한 의의를 가지는 정치적사변이였다.

돌이켜보면 그이께서는 당을 령도하는 전기간 조선로동당을 수령의 당, 인민의 마음속에 뿌리내린 당, 인민이 충심으로 받드는 당으로서의 자기의 성스러운 사명과 역할을 다하도록 령도하여오시였다.

당의 불패성의 담보는 하나의 중심, 하나의 사상에 기초하여 혼연일체, 일심단결을 이룩하고 인민대중속에 깊이 뿌리내리는데 있다.

주체53(1964)년 6월 19일 당중앙위원회에서 사업을 시작하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그때 벌써 조선로동당의 강화발전을 위해 모든것을 다 바쳐가실 의지를 굳히시였다. 특히 조선로동당을 수령의 당으로 건설하기 위하여 사색과 심혈을 기울이시였다.

잠을 자지 않고 일하여도 시간이 모자란다고 하시며 쉽지 않게 마련된 무포에서의 짧은 휴식마저도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을 **김일성**주의로 정식화하기 위한 구상을 무르익히는데 바치신 위대한 장군님이시였다.

그이의 정력적인 사상리론활동으로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은 **김일성**주의로 정식화되고 조선로동당은 위대한 수령의 당으로, 강위력한 혁명의 참모부로 강화발전되게 되였다.

인민대중과 혼연일체를 이루는것을 당건설의 중요한 원칙으로 내세우신 그이께서는 광범한 군중을 당의 두리에 묶어세우도록 하시는 한편 불후의 고전적로작들을 집필하시는데도 심혈을 기울이시였다.

그이께서 내놓으신 《수령님의 혁명사상에 기초한 당원들의 사상의지적통일과 단결을 강화하자》, 《일심단결의 기치를 높이 들고 나아가자》를 비롯한 수많은 고전적로작들에는 당과 대중의 혼연일체, 일심단결을 실현하는데서 나서는 리론실천적문제들이 환히 밝혀져있다.

혼연일체, 일심단결의 당건설지침을 마련해주신 그이께서는 당과 대중의 혈연적련계를 강화하고 당의 대중적지반을 튼튼히 다지는데 큰 힘을 넣으시였다. 특히 전당이 《인민을 위하여 복무함!》이라는 구호를 높이 들고 인민의 요구와 리익을 첫자리에 놓고 모든 사업을 전개해나가도록 하시였다.

그리고 찾으시는 곳마다에서 일군들이 인민의 참된 충복이 되여야 당과 대중의 일심단결을 더욱 공고한것으로 되게 할수 있다고 하시면서 당조직들과 일군들이 인민을 위해 헌신분투하도록 이끌어주시였다.

그 나날 그이께서는 당일군들은 인민들속에 들어가 그들이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요구하는가 하는것을 똑똑히 알고 풀어줄것은 제때에 풀어주어야 하며 민심에 어긋나는 일을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한다고 늘 강조하시였다.

그이의 뜻을 받들고 전당의 당조직들과 당일군들은 현실속에 들어가 인민들과 고락을 같이하면서 그들의 요구와 리익을 실현하기 위하여 헌신적으로 일하였다.

나라가 어려움을 겪던 지난 세기 고난의 행군, 강행군시기에도 그이께서는 당과 대중의 혼연일체를 강화하는데 선차적인 힘을 넣으시였다.

그 나날 그이께서 발전소건설보다도 침수지역 인민들의 생활형편을 념려하시며 살림집부터 먼저 지어주도록 하시였고 함남의 로동계급이 혁신의 봉화를 높이 들었을 때에는 그들을 평양에 초청하여 사랑의 축배잔도 안겨주신 이야기들은 오늘도 만사람의 심장을 울려주고있다.

마음속에 항상 인민을 안고 사신 위대한 장군님이시기에 그이의 모든 사색과 실천의 중심에는 언제나 인민이 놓여있었다. 그러하기에 그이께서는 늘 자신께서는 인민들이 좋아하면 더 바랄것이 없다고 교시하군 하시였다.

어느해인가 개건된 어느한 닭공장에서 생산한 닭고기를 공급받은 인민들이 매우 좋아한다는 보고를 받으시고 자신께서도 기쁘다고 더없이 만족해하시였으며 장강군 장평농장의 새로 지은 살림집들에 가시여서는 기뻐하는 농장원들의 친어버이가 되시여 귀중한 시간을 보내신 그이이시였다.

정녕 인민을 위하시는 그이의 사랑의 세계는 뜨겁고 끝이 없었다.

인민의 행복을 최대의 기쁨으로, 락으로 여기시며 그이께서 위대한 생애의 마지막시기까지 현지지도하신 단위는 1만 4 290여개에 달한다.

그이의 령도에 의해 조국땅에서는 인민사랑의 이야기가 끝없이 펼쳐지게 되였다. 감동깊은 그 화폭들을 보며 조국인민은 더욱더 위대한 장군님만을 굳게 믿고 따랐다.

당시 조국인민들이 장군님의 품은 품고있는 생각도 모두다 말을 하고 움터나는 희망도 터놓으며 온 나라가 운명을 맡기고 사는 어머니품이라 격조높이 노래한것만 보아도 당과 대중의 혼연일체가 얼마나 뜨겁고 열렬한것인가를 알수 있게 하고있다.

하기에 조국인민들은 혁명앞에 시련이 닥쳐올 때마다, 사회주의건설의 전성기를 열어놓기 위한 거창한 사업들이 전개될 때마다 《당이 결심하면 우리는 한다!》는 구호를 높이 들고 무궁무진한 힘을 발동하여 화를 복으로, 역경을 순경으로 전환시키며 사회주의건설을 힘있게 다그치였다.

조선로동당을 수령의 당으로, 혼연일체, 일심단결된 당으로 건설하신 위대한 장군님의 당건설업적은 오늘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에 의하여 빛나게 계승발전되고있다.

그이께서는 《모든것을 인민을 위하여, 모든것을 인민대중에게 의거하여!》라는 구호를 제시하시고 전당이 인민을 사랑하고 인민을 위하여 멸사복무하며 인민에게 의거하여 투쟁해나가도록 령도하고계신다.

인민을 하늘처럼 여기고 인민의 힘에 의거하여 혁명과 건설의 승리적인 전진을 이룩해가시는 경애하는 총비서동지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당건설업적은 길이 빛나고있다.

본사기자

기쁨과 슬픔

반일인민유격대의 남만진출과 때를 같이하여 우사령부대에서도 200명으로 편성된 구분대를 통화지방으로 파견하였다. 이 구분대의 인솔자는 류본초선생이였다. 우사령이 자기의 오른팔이나 다름없는 류본초참모장을 남만으로 보낸 목적은 당취오자위군과의 합작을 실현하며 자위군을 통하여 무장을 해결하려는데 있었다. 그 당시 우사령은 무기의 부족때문에 골머리를 앓고있었다. 료녕성에 본거지를 둔 남만지방의 자위군은 우사령의 구국군부대보다 좋은 무기를 많이 가지고있었다.

우리가 원정을 떠난다는 소식을 듣고 소사하에 찾아온 류본초선생은 자기들도 남만으로 가라는 명령을 받았는데 목적지도 같으니 이왕이면 같이 가지 않겠느냐고 하였다. 자기네와 동행하면 당취오와도 만나게 해줄수 있고 당취오와 련계를 가지면 무기도 해결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였다.

나는 류본초선생의 제의를 쾌히 받아들이였다. 사실 우리한테도 무기는 얼마든지 필요하였다. 구국군과 함께 남만으로 가게 되면 로상에서 중국인반일부대들과 조우하여도 충돌을 피하고 우리의 안전을 담보할수 있었다.

당취오는 원래 동변도 성방군 1련대장으로 있던 사람이였는데 9.18사변후 항일구국을 표방하는 료녕민중자위군을 조직하였다. 그의 휘하에는 만여명정도의 병력이 있었다. 당취오의 자위군은 통화지방에 활동거점을 두고 남만일대를 중심으로 심양주둔 관동군부대와 힘에 부친 싸움을 하고있었다. 그 과정에 그들은 국민부산하의 조선혁명군 부대들과도 련합작전을 조직하군 하였다.

조직초기의 료녕민중자위군은 기세도 높았고 전과도 나쁘지 않았다. 그러나 대세가 일본측에 유리하게 기울어지고 난관이 중첩되자 당취오는 동요하기 시작했다.

국제련맹이 릿튼조사단을 만주에 파견하여 9.18사변의 진상을 조사하게 하였지만 일본군은 이에 별로 큰 구속을 받지 않고 계속적으로 전과를 확대해나갔다. 1932년 정초에 금주를 점령한 일제는 그해 1월 28일 음모적이고 강도적인 방법으로 상해사변을 도발하였다. 그들은 5명의 일본승려가 상해 홍구에서 구타를 당한것을 구실로 삼아 중국의 공장과 상점들을 파괴하고 경찰들을 살해하였으며 뒤이어 해군륙전대를 동원하여 상해시에 대한 대규모적인 무장공격을 개시하였다. 일본이 상해사변을 도발한 목적은 이 도시를 중국본토침략을 위한 교두보로 만들려는데 있었다. 일본군부의 우두머리들은 전격전의 방법으로 상해를 점령하게 되면 그 전과를 타고 중국의 전령토를 일거에 삼킬수 있으리라는 망상을 품고있었다.

상해의 군인들과 인민들은 즉시에 영웅적인 반격을 개시하여 일본침략군대에 심대한 타격을 주었다. 그러나 장개석과 왕정위를 수위로 하는 국민당반동정부의 배신적인 매국정책으로 하여 항전은 실패로 돌아갔으며 상해사변은 굴욕적이고 반혁명적인 《송호협정》을 맺는 것으로 막을 내리였다.

상해항전의 실패는 구국군과 자위군을 비롯하여 반일을 지향하는 모든 애국적군인들과 인민들의 사기를 저락시키였다.

상해사변과 《송호협정》체결과정이 보여주는바와 같이 국민당정부의 반동적인 매국배족정책은 항일구국력량앞에 가로놓인 가장 큰 장애로 되였다. 국민당반동집단은 상해항전을 지원하지 않았을뿐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방해하고 범죄시하였다. 장개석과 왕정위는 제19로군에 대한 군수물자보급을 의도적으로 중지하고 전국각지에서 상해로 보내오는 원호금을 압수하면서도 해군에 비밀지령을 내려 일본측에 식량과 채소를 공급하는 수치스러운 반역행위를 서슴없이 감행하였다.

국민당반동들은 자신들이 항일을 하지 않았을뿐 아니라 인민들도 항일을 못하게 하였다. 그자들의 총구는 언제 어데서나 항일을 하는 사람들의 심장을 겨누고있었다. 항일을 운운하는 사람들은 례외없이 국민당의 테로를 당하든가 그들의 교수대에 올라야 하였다.

장개석은 일찌기 중국이 제국주의의 손에 망한다면 우리들은 망국노는 될지언정 그대로 살아갈수는 있을것이지만 만일 공산당의 손에 망한다면 노예로조차 남아있을수 없을것이라는 망발을 하였다. 이것은 장개석과 그를 두목으로 하는 반동집단이 외래제국주의의 침략세력보다 인민혁명을 더 두려워하고 경계하였으며 그들자신이 제국주의자들의 철저한 노복이고 앞잡이였다는것을 증명해준다.

장개석의 매국행위는 국민당과 이러저러하게 련결되여있고 또 구군벌과 관료, 정객들의 리해관계를 대변하고있는 구국군과 자위군의 상층에 사상적으로 나쁜 영향을 미치였다.

확대일로의 궤도를 달리는 일본군의 위력도 구국군의 사기를 저락시키는 하나의 요인으로 되였다. 릿튼을 필두로 하는 국제련맹조사단은 자기의 보고서에서 만주를 일본의 독점하에 두지 않고 국제공동관리하에 둘데 대한 제의를 발표하였다. 그러나 일본측은 이 제의를 무시해버리고 전투행동을 계속하였다. 일본군의 무력은 점차 산해관과 북부만주방향에로 육박하였다. 그들은 북만의 넓은 지역을 차례차례로 점령하면서 열하방면으로 력량을 집중하였다.

일제는 북만진공을 앞두고 관동군의 특무기관들을 발동하여 동북군을 정치적으로 와해시키며 특무들을 통한 매수, 음모활동으로 북만 동북군의 각 려단이 사분오렬되여 서로 의심하거나 권력쟁탈에 몰두하게 하였다. 적들은 마점산을 칠 때에는 소병문을 끌어당기였고 마점산이 패한 다음에는 소병문을 일격에 소멸하는 식으로 북만의 반일부대들을 손쉽게 각개격파하였다.

북부만주일대에서의 반일부대의 와해과정은 동만의 왕덕림이나 남만의 당취오에게도 영향을 주지 않을수 없었다.

당취오는 인민들의 혁명적기세에 편승하여 항일구국의 기발을 들었으나 대담하고 적극적인 활동을 벌리지 않고 대세를 봐가면서 조심조심 행동하고있었다.

그 당시 정초, 리두, 형점청을 비롯하여 적지 않은 반일부대의 두령들은 적극적으로 항일을 해서는 안되며 국제련맹에 의거해야만이 만사를 해결할수 있다는 망상에 포로되여있었다. 그들은 지어 《장학량이 일본군에 저항하지 않는것은 공산비적을 숙청하기 위해서이다. 공산비적을 먼저 숙청해야 일본군도 쫓아낼수 있다. 공산당이 일본놈들을 끌어들였다.》는 엉터리없는 주장까지 하였다.

우리가 남만으로 떠나던 그해 봄에 주보중이 자위군에 잡힌적이 있었다. 주보중은 그때 자기를 체포한 지휘관들에게 당신네 부대를 왜 자위군이라고 칭하였는가고 문의하였다.

질문을 받은 자위군의 우두머리들은 자위란 자기 력량을 보위한다는 말이다, 자기 력량을 보존하기도 힘든데 무슨 힘이 있어서 일본놈을 치겠는가, 일본놈들이 우리를 치지 않으면 우리도 치지 않는다, 자위란 이런것이다라고 대답하였다.

이것이 바로 자위군의 사고방식이였고 정치적견해였다. 신심을 잃고 동요상태에 빠진 당취오는 산하부대들을 통솔하지 않고 방임상태에 두다싶이 하였다. 이런 때에 우사령이 류본초를 자위군본부에 파견한것은 시기적절한 조치였다고 말할수 있다.

첫날 행군로정을 짧게 잡고 6월 초사흗날 오후에 소사하를 떠난 원정대는 사하(하소사하) 농민협회 회장의 안내를 받으면서 이도강을 건너 류가분방이라는 마을로 행군해갔다. 우리는 여기서 하루밤 묵으면서 정치사업을 하기로 하였다.

(다음호에 계속)

새 제품개발에 힘을 넣어

우리의 원료, 우리의 기술에 의거하여 인민들이 선호하는 제품들을 더 많이 만들어내고있다.

최근 류원신발공장에서 새 제품개발사업에 힘을 넣고있다.

공장에서는 올해 경공업부문에서 인민들의 생활상수요를 기준으로 내세우고 생산투쟁, 증산투쟁을 힘있게 벌릴데 대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5차전원회의 결정을 받들고 몇달어간에 다양한 형태와 색갈의 운동신들을 적지 않게 내놓았다.

공장의 일군들과 기술자들은 어떻게 하면 인민들에게 보기 좋고 편리한 신발을 더 많이 생산보장할것인가, 인민들이 선호하는 여러가지 질좋은 신발을 개발하자면 어떤 문제를 풀어야 하는가에 대해 늘 머리를 쓰고 관심해나가고있다.

일군들은 명상품은 명도안으로 시작된다는데로부터 도안가들이 모든 사업의 첫자리에 신발도안창작을 놓고 새 제품개발사업에서 맡은 역할을 수행하도록 적극 떠밀어주고있다.

공장에서는 도안실에 각이한 재능을 가진 젊고 능력있는 인재들로 력량을 재편성하여 새 제품개발속도를 현저히 높이였다.

도안실 실장 박순희는 《오랜 경험을 가진 도안가들과 진취성이 강한 젊은 도안가들의 협력은 여러모로 새 제품개발과 기술혁신에서 유익하였다.》라고 말하였다.

도안가들은 서로 협조하면서 선진자료열람과 연구를 심화시키는것과 함께 여러 상업봉사망들에서 인민들의 기호와 미감, 각이한 체질과 나이, 계절에 따르는 신발형태와 색갈 등을 료해하여 새 운동신도안들을 창작하였다.

선 편리성, 선 미학성이 구현된 새 도안들은 주에 2차이상 진행되는 도안합평회와 시제품품평회 등을 통하여 부족점들이 극복된 후 생산에 도입되고있다.

도안가들은 매 도안들에 따르는 설계와 견본, 시제품생산 그리고 생산공정기술지도서의 작성, 새 제품완성 등 어느 하나도 놓침이 없이 자신들의 책임성을 높여나가고있다.

하여 이 공장에서는 신발생산의 다종화, 다양화, 다색화, 경량화를 실현하기 위한 새 제품개발속도가 지난 시기에 비할바없이 빨라지였다.

류원신발공장 종업원들의 새 제품개발사업은 언제나 지향적이다.

글 본사기자 연 옥
사진 본사기자 임정국

주체111(2022)년 7월 촬영

천연향료제품으로 인기를

사람들속에서 《옥류》상표를 단 여러가지 향료, 향수제품들이 호평을 받고있다.

그것은 제품들의 향기가 독특하고 여러가지 약효기능을 첨부하고있어 건강에 유익하기때문이다.

제품들은 평양향료공장에서 생산되고있다.

향료의 국산화사업이 힘있게 추진되면서 공장에서는 현재 천연정유를 위주로 하는 향료생산체계를 세우고 향기롭고 건강에도 좋은 천연향료들을 개발하였다.

《세계적으로 향료생산은 합성단일향이 아닌 록색향으로 지향되고있다. 공장에서는 공해가 없는 조국의 산과 들에 많이 자라는 향료식물들에서 여러가지 정유를 추출하여 천연향료개발과 생산에 도입하는데 힘을 넣고있다.》라고 지배인 유순영은 말하였다.

공장에서는 분비나무, 누운측백나무, 누운잣나무, 창포, 분지나무, 장미꽃, 오미자열매, 백산차잎을 비롯한 조국에 흔한 꽃, 잎, 가지, 열매, 씨, 뿌리 등에서 정유를 추출하여 향료원료로 리용하고있다. 원료원천이 풍부한 조국에서 그 생산량은 한해에 수십t에 달한다.

이렇게 생산된 식용향료와 공업용향료들은 그 향기가 독특할뿐 아니라 식물의 다양한 기능성약효를 함께 가지고있는것으로 하여 제품으로서의 그 가치가 높이 평가되고있다.

공장에서는 고수, 박하를 비롯한 향료작물재배면적도 계획적으로 늘여 그 생산성을 높이고있다.

비결은 생산과 연구를 일체화하고있는데 있다.

공장의 향료연구소에는 권위있는 전문가들이 많다.

이곳 소장 최등광은 조국의 천연향료부문의 권위자이다. 공훈과학자이며 후보원사, 교수, 박사인 그는 처음으로 천연향료인 청송향을 개발하였다.

그를 비롯한 연구집단은 최근에만도 향원료의 특성에 맞는 용매추출과 초림계류체추출, 수증기증류 등 여러가지 천연정유추출기술과 함께 향기증강효과를 나타내는 효소분해법을 생산에 도입함으로써 향료의 질을 현저히 개선하였다.

향기롭고 건강에도 좋은 천연향료제품개발과 생산으로 《옥류》상표가 인민들속에 더 친근하게 자리잡게 하자는것이 이곳 생산자들의 지향이다.

글 본사기자 김성경
사진 본사기자 김영호

《아름다운 래일은 우리 손에서…》

주체111(2022)년 7월 촬영

국가설계총국 류경건설설계연구소는 조국에서 잘 알려지지 않은 단위이다. 그러나 연구소 설계가들의 노력이 깃든 건축물들은 조국인민 누구나 잘 알고있다.

5월1일경기장, 창전거리, 릉라인민유원지, 려명거리, 평양양로원…

그중에서도 평양양로원은 연구소의 걸작품들중의 하나이다.

건물을 보기만 해도 민족적향취가 짙게 풍기는 평양양로원은 주체104(2015)년 8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높은 평가를 받았다.

돌이켜보면 주체48(1959)년 2월에 창립된 연구소는 언제나 민족적특성을 살리면서도 높아가는 인민의 지향과 요구를 설계에서 주선으로 틀어쥐고나감으로써 기념비적인 창조물들을 수많이 일떠세우는데 기여하였다.

연구소에서는 1960년대에 청산리의 농촌문화주택설계를 시작한 때로부터 년대별로 변모될 조국의 모습들을 설계도면에 옮겨놓았다.

설계가들이 몇번이나 현지를 답사하며 대상을 파악하고 해당 지역의 특성에 맞게 설계한 건축형성안들은 매번 사람들의 호평을 받군 하였다.

연구소에서는 설계에서 주체성과 민족성을 확고히 견지하고 독창성과 편리성, 실용화와 기능화를 보장하며 선편리성과 선미학성, 선하부구조의 원칙을 지키고있다.

하여 흐르는 세월과 더불어 설계진영의 부단한 세대교체가 이루어졌지만 이 연구소에서 설계한 창조물들은 비반복적이고 새맛이 난다는것이 일반적인 평가이다.

오늘 연구소는 젊은 사람들이 중진을 이루고있으며 설계의 과학화와 정보화수준이 급속도로 발전하여 조국의 이름있는 설계연구소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있다.

림혁철소장은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 설계가들은 설계도면의 선 하나, 점 하나에도 시대의 사상과 넋, 약동하는 기상이 반영되게 하기 위해 지혜와 열정을 아낌없이 바쳐가고있다. 조국의 아름다운 래일은 우리 손에서 먼저 그려지고있다. 우리 설계가들은 이러한 자각을 늘 안고있다.》

글 본사기자 엄향심
사진 본사기자 임정국

류경건설설계연구소에서 작성한 형성안들의 일부

모범로동자영예상을 받은 장애자

평양326전선종합공장의 많은 종업원들이 케블직장 로동자 배정섭을 두고 창의고안명수, 공장의 보배라고 부른다.

현장에서 작업하는 그의 모습은 로동자라기보다 연구사를 방불케 한다.

오랜 기간 로동생활과정에 일하면서 탐구하고 탐구하면서 일하는 생활방식이 이제는 몸에 푹 배여 그를 그렇게 보이게 하는듯싶다.

그는 남다른 열정으로 해마다 많은 기술적문제들을 해결하여 공장의 년간 인민경제계획수행과 경영활동에 크게 기여하였다.

지금으로부터 30여년전 공장에 들어온지 얼마 안되던 때에 그는 뜻밖의 일로 다리를 상하여 장애자가 되였다.

당시 20대초엽에 있던 그는 절망에 잠겨있었다고 한다.

그때 공장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이 그에게 우리 나라에 장애자는 있어도 불우한 운명은 없다며 삶에 대한 새로운 희망을 안겨주었다.

특히 어머니는 그에게 마음에까지 장애가 와서는 안된다고, 비록 다리는 상했어도 마음만 굳게 먹으면 얼마든지 사회와 집단을 위해 일할수 있다고 고무해주었다고 한다.

이렇게 되여 그는 마음을 안착하고 새로운 결심으로 일을 하게 되였다.

처음 그는 오랜 기능공들에게서 기술을 배우고 자체로 학습도 하면서 자기의 기술기능을 높이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였다. 그리고 밤에는 전기, 화학을 비롯한 여러 분야의 책들을 탐독하였다.

지식의 탑을 한돌기한돌기 쌓아가던 그는 자기가 다루는 함침공정설비들을 어떻게 하면 품도 적게 들고 시간도 단축할수 있게 하겠는가 하는데 대해 생각을 하게 되였다.

그는 짬시간마다 기계, 화학공업분야에 대한 문헌들을 연구하고 리해하기 힘든 문제들은 전문가들의 방조를 받으며 끝내는 함침공정자동조종체계를 완성하게 되였다.

여기에서 신심을 얻은 그는 새로운 생산공정을 확립하기 위한 공장적인 기술혁신사업에도 참가하여 기발한 착상들을 련이어 내놓아 사람들을 놀라게 하였다.

그 나날 그는 생에 대한 새로운 희열과 랑만을 안게 되였으며 기술혁신사업에 더 적극적으로 참가하였다.

하여 그는 자기앞에 맡겨진 생산계획을 넘쳐 수행하면서도 150여건의 크고작은 기술혁신안을 생산실천에 도입하였다.

최근시기에만도 그는 원료, 자재의 국산화를 실현할수 있는 여러건의 기술혁신과 창의고안을 내놓음으로써 공장의 생산정상화에 기여하였다.

나라에서는 사회와 집단을 위해 성실한 땀을 바친 그의 공로를 값높이 평가하여 지난해 그에게 모범로동자영예상을 수여하였으며 올해 4월에는 보통강강안다락식주택구 경루동의 호화주택을 배정해주었다.

그는 자기의 소감을 이렇게 피력하였다.

《아마도 자본주의사회같으면 나는 오래전에 길가의 막돌처럼 버림받았을것이다. 내가 무엇인가 하였다면 저같은 사람에게도 로동의 보람을 알게 해준 이 제도와 서로 위해주는 사회를 위해 적은 힘이나마 공민적의무를 하였을뿐이다.》

글 및 사진 본사기자 강경수

더욱 부각되는 원 격 교 육

문수물놀이장관리소 경리 리성욱

전민과학기술인재화를 목표로 내세운 조국에서는 원격교육이 활발히 진행되고있다.

원격교육의 우월성에 대하여 학생들과 졸업생들은 말하고있다.

누구나 창의고안을 할수 있다

발전하는 시대와 함께 지식의 갱신주기도 상당히 빨라지고있다. 이것은 짧은 기간에 더 많은 지식과 기술을 습득할것을 요구한다. 그러므로 이미 대학과정안을 마친데 만족해가지고서는 시대에 자신을 따라세울수 없다.

내가 일하는 문수물놀이장에는 지열뽐프, 공기조화기를 비롯하여 수많은 설비들이 있다.

이 설비들을 정상가동시키자면 경리인 나부터가 그 속내를 환히 꿰뚫어야 한다.

그래서 나는 현장에서 일하는 로동자들과 함께 평양기계대학 원격교육학부 통합생산체계공학과에 입학하여 배우고있다.

하루수용능력이 다른 물놀이장들에 대비할수 없으리만큼 큰 문수물놀이장에 대한 경영관리를 하면서 공부하자니 힘이 배로 들었다.

하지만 선진기술을 모르고서는 아무 일도 할수 없다는 자각을 안고 열심히 노력하였다. 이 과정에 20여개에 달하는 수조의 측정수관로를 개조하여 년간 많은 전기를 절약한것을 비롯하여 여러건에 달하는 창의고안에 적극 참가하였다.

나뿐만아니라 관리소에서 일하는 원격교육학부 졸업생들과 학생들은 새로운 과학기술도입의 주인공들로 되고있다.

이것은 명실공히 일하면서 배우는 원격교육의 덕이다.

삼일포전자제품공장
3대혁명소조원 리정표

제2의 전공을 선택할수 있다

원격교육의 우점에 대해 나는 제2의 전공을 선택하게 해준다고 말하고싶다.

희천공업대학 전기통신공학부 체신경영학과를 졸업한 나는 삼일포전자제품공장에서 3대혁명소조원으로 사업하면서 김책공업종합대학 원격교육학부 기계전자공학과에서 배우고있다.

처음의 전공과 지금의 전공은 다르지만 실지 배운 내용을 활용할수 있는 현장에서 공부하니 공장의 생산공정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자기가 만든 제품의 질을 과학적으로 분석하며 새 제품개발과 공정설계 등을 원만히 할수 있게 되였다.

모르는 문제들은 실시간 질의응답과 학과토론 등을 통해 지식을 공고화해나가게 되였다.

선생님들은 내가 리해할 때까지 곁에서 대주듯 차근차근 설명해준다.

이 나날 나는 음향측정실설계를 비롯하여 많은 기술혁신을 하였다.

아직은 원격교육학부과정안을 마치지 못했지만 졸업후 나는 또 배우려고 한다.

젊었을 때 나는 3개의 대학을 나오려고 한다.

일하면서 배우는 원격교육체계는 나의 꿈을 실현해준다.

과정안을 마음대로 앞당길수 있다

대학들은 그 과정안이 대체로 고정되여있다. 그러나 원격교육체계에 망라되여 노력만 하면 그 과정안을 앞당길수 있다.

주체108(2019)년 평양기계대학 원격교육학부 응용전자공학과에 입학할 때 2년반동안에 전공학과에 정통하고 학부를 졸업한 선배도 있다는 말을 듣고 나는 3년안에 대학과정안을 마칠 결심을 다졌다.

교실이 따로 없는 원격교육은 시간과 장소에 구애됨이 없이 어디서나 강의를 받을수 있고 리해가 될 때까지 강의를 다시 들을수 있는것으로 하여 그 우점이 정말 많다.

출퇴근길과 휴식일에 나는 늘 휴대용콤퓨터를 들고다니며 강의를 받았다. 그리고 배운것은 현장에서 실지 해보면서 지식을 공고히 하였다.

부단한 노력끝에 나는 학기시험들을 원만히 치르고 《역변환식용접기》라는 졸업론문을 빨리 발표할수 있었다.

이로써 나는 결심대로 3년안에 대학과정안을 마치고 원격교육학부를 졸업하였으며 로동자로부터 기술준비실 기술원으로 되였다.

하나음악정보쎈터
기술원 김진웅

이름난 조기성악반

- 중구역 동안고급중학교를 찾아서 -

조국의 각지 소학교, 초급, 고급중학교들에서는 여러가지 과외소조활동으로 학생들의 지능을 계발시키고 재능들을 키워주고있는데 그중에는 조기성악교육을 주는 학교들도 있다.

중구역 동안고급중학교 조기성악반은 수많은 성악가후비들을 키워낸것으로 하여 그 이름이 널리 알려져있다.

첫걸음

《조기성악반은 주체72(1983)년 5월 20일 뛰여난 독창가수들을 키워낼 목적으로 자기의 첫걸음을 떼였다.》라고 학교부교장 겸 분과장 오정윤은 말하였다.

오정윤분과장은 지난 시기 왕재산경음악단(당시) 배우로 활약하면서 노래 《하얀 서리꽃》, 《단풍은 붉게 타네》를 잘 불러 인기를 모으던 가수였다.

그러던 그는 주체95(2006)년부터 조기성악반 교원으로 성악가후비양성의 교단에 서게 되였다.

대체로 조기성악반의 교원들은 김원균명칭 평양음악대학을 졸업하고 예술단체들에서 경험을 풍부히 쌓은 배우들로 구성되여있다.

조기성악반은 첫걸음부터 난문제에 부닥치였다.

그것은 변성기에 이르지 못한 학생들을 조기환성시킬것인가 아니면 변성기를 기다릴것인가 하는 문제였다.

그러나 교원들은 조기성악교육의 의의가 단지 성악적나이를 앞당기는데 있다고만 생각하지 않았다.

거목으로 되자면 뿌리가 든든해야 하는것처럼 유명한 성악가를 키워내자면 기초를 어릴 때부터 잘 쌓아야 한다고 생각한 교원들은 변성전의 환성에 기초한 조기교육을 처음으로 시작하였다. 특히 당시 분과장이였던 인민교원 리인희는 이 조기교육의 선구자로 되였다.

그들의 고심어린 노력은 끝내 빛을 보았다. 그들은 조기환성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 조기성악에서 과학리론적, 실천적경험을 풍부히 쌓게 되였다.

뿐만아니라 학생소년들의 생리적특성에 맞는 발성법완성을 비롯하여 많은 교육과학성과들을 이룩하였다.

하여 지난 수십년간 인민배우, 국제콩클수상자들을 비롯하여 수많은 성악가들을 배출하였다.

조기성악의 바통을

이곳 교원들과 학생들은 조기성악의 바통을 이어가야 할 책임을 다같이 걸머지고있다.

이곳에서는 학생선발에 많은 품을 들이고있다.

해마다 개학을 몇달 앞두고 교원들은 시안의 소학교들을 찾아다니면서 졸업반학생들속에서 예술적소질과 체모를 갖춘 대상들을 선발하고있다.

천성을 기본으로 하면서도 시창, 노래, 인물심사 등 여러 시험을 거쳐 학생들을 엄선하고있다.

그리고 학생들의 음악적소질과 재능, 생리적조건을 종합적으로 료해분석한데 기초하여 교육의 순차성과 체계성을 엄격히 세우고있다.

천성적인 재능도 어떻게 키워주는가에 따라 그 결실이 크게 좌우된다는것을 오랜 경험을 통하여 체득하고있는 이곳의 교육자들이다.

조기성악반에서는 학생들이 자기들의 개성을 충분히 다 발휘하도록 하는 한편 예술발전추세와 성과들을 구현하여 교육내용을 끊임없이 개선해나가고있다.

이들의 노력으로 해마다 진행되는 전국학생청소년예술개인경연에서 학교의 조기성악반 학생들은 여러번이나 1등을 하였으며 수백명의 입상자들이 배출되였다.

오늘 학교의 졸업생들은 중앙예술단체들과 혁명가극 《피바다》, 《꽃파는 처녀》를 비롯한 5대혁명가극의 주단역을 맡은 배우들로 성장하여 모교의 영예를 빛내가고있다.

국제콩클수상자이며 인민배우인 리향숙을 비롯한 수많은 졸업생들은 자주 모교를 찾아와 자기들의 꿈을 자래우던 옛시절을 추억하면서 선생님들의 노력에 존경을 표시하고 새세대들을 고무해주군 한다.

글 본사기자 엄향심
사진 본사기자 임정국

조기성악반에서는 호흡, 발성원리, 장단, 피아노, 률동 등 음악기초교육에 큰 힘을 넣고있다.

주체111(2022)년 7월 촬영

주체95(2006)년에 조직된 교류사는 중국의 중화전국부녀련합회와의 합작과 기술교류도 진행하고있다.

녀성들이 즐겨 찾는 곳

조중녀성문화교류사는 녀성들에게 류다른 관심과 기대, 따뜻한 애착을 안겨주는 봉사기지로 널리 알려져있다.

이곳에서는 녀성들을 대상으로 가정과 문화정서생활에 필요한 여러가지 기술전습들을 주고있다.

미용, 미안, 성악, 악기, 료리, 치료체육, 피복가공 등의 다양한 기술전습들은 녀성들의 문화수준을 높여주고 다양한 정서생활에로 이끌어준다.

전습에는 처녀들과 가정부인, 로년기 등 각이한 직업과 나이의 녀성들이 참가한다.

기술전습에 필요한 설비와 기재들이 갖추어진 전습실들에서 녀성들은 자기들의 희망과 요구에 따라 필요한 기술을 속성으로 배운다.

실기를 기본으로 하면서 리론강의를 배합하고있는 기술전습들은 짧은 기간에 기술을 원만히 습득하게 하는것으로 하여 녀성들속에서 《실리있는 교육》으로 인기를 모으고있다.

높은 자질을 소유한 전문가들로 구성된 강사들은 교수내용과 방법을 끊임없이 갱신해가고있다.

모든 기술전습들이 그러하지만 특히 료리와, 치료체육, 성악, 악기연주전습들이 녀성들의 특별한 기대를 모으고있다.

료리기술전습실에서는 민족료리를 비롯하여 동서양료리 등 수천가지의 각종 료리제법들을 배워주고있는데 전습생들의 요구에 따라 초빙강의, 이동강의도 진행하고있다.

강의와 실천을 통해 녀성들은 짧은 기간에 다양한 료리법과 기술을 터득하게 되며 이렇게 익힌 료리솜씨들은 가정에서 생활의 향기를 더해주고있다.

《나의 생활에서는 변화가 일고있다. 경추증과 소화장애증상으로 마음이 무겁고 기분이 늘 언짢았는데 유쾌한 운동으로 증상들이 완화되면서부터는 생활이 아름답고 즐겁게만 느껴진다. 젊음이 다시 찾아오는것같다.》

치료체육전습을 받고있는 김명순(55살)의 말이다.

건강치료를 목적으로 요가와 률동을 배합하고있는 전습은 인체의 부위별균형을 바로잡아주고 몸의 유연성을 해결해줌으로써 녀성들의 아름다움과 건강치료에 도움을 주고있다.

성악, 악기연주전습도 인기를 끌고있는데 로동시간후에 성악을 배우고나면 피로가 가셔지고 마음이 즐거워진다는것이 전습생들의 한결같은 반향이다.

《우리는 전습생들의 요구에 더 가깝게 강의수준을 부단히 갱신함으로써 녀성들의 생활을 아름답게 가꿔주는데 적극 이바지하려고 합니다.》라고 교류사사장 현은숙은 말하였다.

교류사가 운영을 시작하여 첫 전습을 진행하던 해에 700여명이였던 기술전습생은 해마다 장성하고있다.

글 본사기자 김성경
사진 본사기자 김영호

난치성질병들에 도전하여

지금으로부터 8년전 옥류아동병원의 뇌신경외과 의료일군들은 국내에서 처음으로 소아경련성뇌성마비에 대한 외과적수술을 진행하였다.

고심어린 연구와 수차례의 모의수술끝에 진행한 이 수술은 근 6시간동안이나 진행되였으며 결과는 성공적이였다.

후에 그들은 수술시간을 2시간으로 단축하여 환자들에게 가해지는 수술적침습을 최소화하였으며 이 수술방법을 전국에 널리 도입하였다.

이렇게 의료집단은 병원이 생겨 얼마 안되여 당시 난도가 높은 신경외과질병치료의 첫문을 열어놓았다.

과가 조직될 당시 의사들 대부분이 대학을 졸업한지 얼마 되지 않은 신경외과분야의 초학도였다. 그런것으로 하여 경험도 부족하고 의료봉사수준도 응당한 높이에 있지 못하였다. 특히 난치성질병을 앓는 어린이들에 대한 치료사업을 적극적으로 벌리지 못하였다.

옥류아동병원이 전국의 어린이들을 대상하는 병원인것만큼 각이한 질병으로 입원하는 환자들을 모두 완치시키자면 그에 맞게 의사들의 림상치료수준을 최단기간에 높여야만 했다.

김진명과장을 비롯한 의료집단은 자기들의 과학기술적자질을 높이는것과 함께 선진치료방법들을 적극 도입하기 위한 탐구로 낮과 밤을 이어갔다.

그렇게 수년간의 노력을 기울여온 그들은 소아경련성뇌성마비에 대한 외과적수술방법으로 첫 성과를 거두었다.

처음으로 개척한 질병치료방법에서 힘을 얻은 의료집단은 더욱 분발하였다.

그들은 한건의 수술을 진행한 후에는 수술경험을 나누고 서로의 지혜와 힘을 합치면서 새로운 치료방법들을 모색해나갔다.

김진명과장은 비교적 림상년한을 가진 의사와 대학을 갓 졸업한 신입의사와의 협동을 잘할수 있게 수술도 조직하고 학술적인 문제도 토론하도록 하였다.

이와 함께 그는 의사들에게 기계적이고 학술적인 치료에 앞서 인간에 대한 사랑과 헌신성을 먼저 지녀야 하며 모든 환자들을 자기의 친자식으로 생각할 때만이 좋은 치료방법이 나오고 성과도 있게 된다고 강조하군 한다.

그런 속에서 의료집단은 아놀드-키아리기형(선천성기형)의 12살 난 어린이에 대한 수술방법을 연구도입하여 기적적으로 환자를 완치시키였다. 그로부터 얼마후에는 어린이들속에서 나타나고있는 모야모야병의 혈관문합술을 확립한데 이어 어린이뇌종양에 대한 수술방법 등 10여건의 난치성질병치료방법을 련이어 개척하였다.

보통강구역에서 사는 리명희녀성은 난치성질병을 앓던 딸이 10여년만에 이곳 뇌신경외과에서 수술을 받고 완치되였다고 하면서 옥류아동병원은 건축물과 의료설비수준도 좋지만 의료일군들의 지극한 정성과 의술역시 높은 수준에 있다고 이야기하였다.

지금 뇌신경외과의 의료집단은 보다 높은 목표를 제기하고 실천해가고있다.

그들은 몇년전부터 소아전간외과부문의 치료방법들을 완전히 개발창조형으로 개척하려는 야심을 안고 여기에 주력하고 있다.

글 본사기자 강경수
사진 본사기자 김강무

옥류아동병원 뇌신경외과 과장 김진명

옥류아동병원은 나라에서 통들여 꾸려준 병원이다. 이런 훌륭한 병원에서 어린이들의 건강을 책임진 우리 의료일군들의 사명감은 대단히 무겁다.

재미나는 한주간이 시작되였다

- 창광유치원에서 -

조국의 각지에는 녀성들이 마음을 놓고 사회활동, 가정일을 할수 있도록 일정한 지역마다 국가적부담으로 운영하는 유치원이 있다. 유치원들은 일일유치원, 주유치원, 10일유치원으로 되여있다.

그중에는 지난 8월 26일 창립 40돐을 맞이한 창광유치원도 있다. 창광유치원은 사업상 특성으로 하여 출장이 많은 평양시안의 과학자, 기자, 예술인 녀성들의 자녀들을 위한 주유치원이다.

재미나는 한주일이 되게

한주일만에 아이들을 찾는 어머니들은 여러모로 달라진 아이의 모습을 보고 무척 기뻐하며 교양원들에게 《수고가 많았습니다. 고맙습니다.》라고 이구동성으로 감사의 뜻을 표시한다.

이것은 매주 월요일에 아이를 창광유치원에 맡겼다가 토요일에 찾아가는 어머니들의 한결같은 말이다.

유치원에서는 주간에 어머니를 대신하여 어린이들의 영양관리와 위생관리를 기본으로 하면서도 그들의 지능을 계발시키고 관찰력과 사고력, 기억력, 상상력을 체계적으로 키워주며 문화적소양을 높이고 몸을 튼튼히 하도록 교육교양하고있다.

특히 장난이 심하고 집중력이 오래가지 못하는 심리적특성에 맞게 유치원에서는 놀이를 통하여 자연과 사회에 대한 초보적인 표상을 주고 생활체험을 풍부히 해주어 그들의 정신육체적 능력을 전면적으로 발전시켜준다. 특히 우리 말을 정확히 듣고 리해하고 자기 의사를 표현할줄 알도록 하며 글자쓰는 법, 셈세는 법 등을 가르쳐주어 학교교육을 정확히 받을수 있도록 학교전교육을 주고있다.

그중에서도 교양원들이 개발한 지능계발다매체편집물 《꽃봉오리》에 의한 교육방법이 기본으로 되고있다. 이 편집물은 전국에 도입되였다.

동심에 맞게 찾기, 선택하기, 맞추기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1 800개의 지능문제를 풀어나가도록 되여있는 편집물은 어린이들이 독자적으로 사고하고 분석과 종합, 판단할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데 도움을 주고있다.

유치원에서는 어린이들의 심리적특성에 맞게 지능놀이를 통한 교육과 음악교육에도 힘을 넣고있다.

유치원에서는 어린이들에게 일기쓰기교육도 주어 감상능력과 표현능력을 높여준다.

교양원들은 매 아이들의 체질과 성격, 취미 등에 대한 세심한 관찰에 토대하여 피아노, 기타를 비롯한 악기들과 성악, 미술, 외국어, 주산, 바둑 등을 배워주어 신동들을 키워내고있다.

주체72(1983)년부터 조기음악교육을 진행한 유치원은 음악적감수성이 뛰여난 어린이들을 선발하고 창조적인 교육방법들을 적극 활용하여 수백명의 음악신동들을 체계적으로 키워내였다.

천성적인 재능의 싹도 어떻게 보살피는가에 따라 그 결실이 좌우된다는것을 자각하고 부단한 노력을 기울이는 이곳의 교양원들이다.

이들은 매주 분과별토론회를 조직하여 우수한 교육경험들을 서로 교환하기도 한다.

30여년간을 교양원으로 일하고있는 박미란분과장은 《어린이들을 유치원에 맡긴 어머니들이 마음을 놓고 일할수 있게 하는것이 우리 교양원들의 본분입니다.》라고 말하였다.

국가적인 보살핌속에

이곳 교양원들은 국가의 어린이보육교양법을 준수하면서 어린이들의 정상적인 성장발육에 커다란 주목을 돌리고있다.

파외교양원들과 의사들, 취사원들은 어머니의 심정으로 어린이들의 생활을 따뜻이 돌보고있다.

유치원에서는 달마다 아이들의 몸무게, 키를 비롯하여 건강검진을 진행하며 적극적인 대책을 세워나가고있다.

특히 모든 어린이들이 몸단련을 위한 운동을 즐겨하고 활발하게 생활하도록 하는데 힘을 넣고있다.

취사원들은 매주 어린이들이 섭취해야 할 영양공급기준에 맞게 식사조직을 합리적으로 하고있으며 생일을 맞는 어린이들에게는 생일상도 차려주며 축하해주고있다.

국가적인 관심속에 유치원은 주체103(2014)년에 개건되였다.

유치원은 지난 40년간 뛰여난 재능을 가진 전국유치원어린이들의 경연을 비롯한 여러 경연들에서 1등을 하였다.

수많은 졸업생들은 자기들의 마음속에 간직된 창광유치원에 대하여 애틋한 감정을 가지고있다.

지난 기간 많은 외국인들과 해외동포들이 이 유치원을 방문하였다.

그들은 창광유치원이야말로 그 어디에서 찾아보기 힘든 유치원이다, 세계각지를 다니며 수많은 유치원들을 보았지만 이곳이야말로 대단히 보기 힘든 하나밖에 없는 훌륭한 유치원이다, 모든 어린이들이 아름답고 무진장한 잠재력을 가지고있다고 말하였다.

또한 수리아의 한 인사는 여기에서 바로 창조와 우수성이 시작된다, 아이들의 마음속깊이에 조국에 대한 사랑이 심어지는 곳이라고 하면서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절대적인 관심에 의하여 조선의 특출한 새세대들이 태여나고있다고 말하였다.

김명순원장은 이렇게 말하였다.

《조선속담에 시작이 절반이라는 말이 있듯이 유치원시기는 비록 2년간이지만 어린이들의 성장에서 어려서부터 조국을 사랑한다는것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고 동무들과 로동을 사랑하며 생활을 사랑하도록 하는데서 매우 중요한 시기입니다.》

40년의 년륜을 새겨온 창광유치원에 많은 녀성들이 축하의 인사를 보내였다.

글 본사기자 엄향심
사진 본사기자 김영호

평양의 가을

모란봉에서 본 10월의 평양/촬영 리진혁

사계절중 제일 장관이라는 단풍계절이 수도의 이르는 곳마다에 황홀하게 펼쳐졌다.

록음 우거졌던 수도의 거리도, 대동강반의 유보도와 중앙식물원이며 공원, 휴식터들이 어느새 감빛으로 물들어가고 옷섶으로 스며드는 선들선들한 바람은 완연한 가을기운을 느끼게 하고있다.

봄이면 온갖 꽃이 만발하고 여름이면 진한 신록으로 단장되였던 수도 평양의 거리가 지금은 또 이렇게 이채로운 단풍속에 묻혔으니 오고가는 사람들마다 자연의 감미로운 정서에 함뿍 취하게 하고있다.

수도의 가을은 어디 가나 류다른 정서를 불러일으키지만 그중에서도 평양의 자랑인 모란봉의 가을풍치는 이만저만 아니다.

예로부터 모란꽃과도 같이 생김새가 기묘하고 특이하여 사람들의 사랑을 받아온 모란봉은 인민의 명승지로 더더욱 빛을 뿌리며 한폭의 아름다운 미술작품을 련상케 한다.

단풍든 천리마거리/촬영 본사기자 리영철

10월의 단풍은 사람들에게 류다른 정서를 안겨주고있다.
촬영 김광림, 공유일

노란 잎새를 소소리높이 떠인 넓은 잎나무들과 붉은 잎새를 자랑하는 단풍나무들, 그 사이사이에서 더 푸르러 보이는 소나무들로 모란봉은 한층 더 화려하고 신선하게 채색된듯싶다.

10월의 모란봉/촬영 김성철

단풍나무가지가 소담하게 드리워진 평화정이며 모란봉의 단풍을 담아싣고 출렁이는 못가, 유별한 정서를 한껏 느끼며 다양한 생활을 펼쳐가는 사람들의 모습은 보기만 해도 마음이 즐거워지게 한다.

대동강기슭에 펼쳐진 가을풍경은 또 그대로의 멋이 있다.

대동강기슭에 일떠선 과학기술전당과 류경원, 인민야외빙상장, 5월1일경기장, 릉라곱등어관, 릉라인민유원지며 창전거리, 미래과학자거리 등 여러 건축물들과 대동강에 정박하고있는 봉사선들이 수도 평양을 감돌아흐르는 대동강의 푸른 물결과 단풍진 나무들로 하여 더 이채롭게 보인다.

구수한 향기로 길손들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는 군밤, 군고구마매대들도 단풍계절의 정서를 한껏 더해주고있다.

평양의 가을풍치는 조국인민들에게 깊은 정서와 끝없는 열정, 환희를 안겨주고있다.

본사기자 최은혁

애국에는 로년기가 없다

많은 사람들이 나이가 들어 직장생활을 마치고 집에 들어가면 생각이 많아진다고 한다.
무엇을 할것인가.
이 물음에 대답을 주는 년로자들이 조국에는 많다.
그들은 자신들의 풍부한 경험으로 유익한 일을 하고있다.

글　본사기자 김일봉
사진 본사기자 김강무

평양시 락랑구역 승리3동에 살고있는 리능석로인을 두고 사람들은 단나무아바이라고도 부른다.

한생을 철도부문에서 일해온 그가 집에 들어온지는 10여년이 된다. 이 나날 그는 집뜨락과 마을주변에 수백그루의 단나무를 심고 가꾸어왔다. 뿐만아니라 7만여그루의 묘목을 생산하여 110여개 단위에 보내주기도 하였다.

로인이 단나무와 인연을 맺게 된데는 사연이 있었다. 점차 나이가 들면서 심장병으로 불편을 느끼던 로인은 단나무열매가 피를 맑게 하고 심장병과 뇌질환에 좋다는 말을 듣게 되였다. 하여 집뜨락에 묘목을 심고 단나무를 가꾸기 시작하였다. 2년이 지나자 나무들에서는 열매가 달렸다. 나무를 가꾸기 시작해서부터인지 아니면 단나무열매를 먹어서인지 심장병치료에서도 차도가 보이기 시작하였다. 로인은 집뜨락에는 물론 주변의 여러곳에 단나무를 심고 정성껏 가꾸었으며 해마다 많은 열매를 수확하여 전쟁로병들과 영예군인들, 탁아소와 유치원에 보내주었다.

사람들과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모습을 보면서 능석로인은 나무를 가꾸면서 건강이나 돌보자고 생각했던 자신의 생각이 좁았다는것을 느끼게 되였다.

(나도 사회를 위해 무엇인가 할수 있다.)

이런 마음을 안고 로인은 단나무를 심고 가꾸면서 묘목을 생산하여 많은 단위들에 보내줄 목표를 세웠다. 그의 마음에 감동되여 마을의 년로자들과 학생들이 도와나섰다. 오늘 마을에서 《단나무집》이라면 모르는 사람이 없다.

평양시 중구역 역전동에서 살고있는 리형태로인은 공훈기술자이며 나이는 81살이다.

그는 일손을 놓고 집에 들어와서도 물절약기를 연구완성하였다. 이 물절약기는 평양시 평천구역 미래동과 량강도 삼지연시에 도입되여 많은 전기와 물을 절약하였다고 한다.

뿐만아니라 도로청소기를 창안제작하여 중구역과 평천구역의 도로시설관리소에 보내주었으며 자연대류식뜸치료기도 개발하였다.

사람들이 나이도 많고 몸도 불편한데 쉬라고 할 때마다 로인은 이렇게 말하군 한다.

《우리와 같은 년로자들이 여생을 편안히 보낸다고 해서 누가 말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사회와 집단을 위하여 무엇인가 해놓을 때 여생도 더 보람있게 보낼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그를 보고 《우리 기술자 아바이》라고 정을 담아 부르고있다.

이들만이 아닌 많은 년로자들이 스스로 《도로관리공》, 《산림보호원》, 《강사》가 되여 조국을 위해 여생을 바쳐가고있다.
퇴직한지 10년 지어 20년이 되였어도 새로운 인생길을 걷는 그들을 두고 사람들은 퇴직은 인생에 새로운 기회를 준다고 말하고있다.

고향소식

행복을 가꿔가는 금성리사람들

해방전까지만 해도 금성리에는 과일나무들이 얼마 없었다고 한다. 사람들은 농사만으로는 생계를 유지할수가 없어 반농반어업에 종사하면서 근근히 살아왔다. 그러했던 금성리가 지금은 옛 모습을 찾아볼수 없게 모든것이 변모되였다. 황무지나 다름없던 척박한 땅에 탐스러운 열매 주렁지는 청춘과원이 펼쳐져 사람들이 과수의 덕을 톡톡히 보고있다.

온천과수농장 지배인 임준혁의 말에 의하면 금성리의 지세와 기후조건은 과일재배에 매우 유리하다고 한다. 1960년대에 금성리사람들은 더 많은 면적의 부침땅들을 과수밭으로 전환하고 과수업을 전문으로 하는 온천과수농장을 일떠세웠다.

그때부터 금성리에는 과수업의 새 력사가 펼쳐지게 되였다. 제 손으로 고향을 꾸려갈 일념안고 부지런히 일하며 성실한 땀을 뿌려가는 이 고장 사람들의 근면한 노력은 농장의 전변을 안아왔다.

최근에만도 금성리사람들은 조선로동당 제8차대회 결정관철에 한사람같이 떨쳐일어나 과일생산능력을 보다 높이였다.

지난 기간 과수업을 해오는 과정에 쌓은 경험에 비추어 이들은 과학기술을 자기 농장발전의 열쇠로 틀어쥐고 지난해에도 우량품종으로 널리 알려진 기둥형배나무의 비배관리에서 제기되는 과학기술적문제들을 해결하여 다수확의 전망을 열어놓았다. 이들의 노력이 있어 옮겨심은 해에는 열매가 달리지 않는다던 상례를 깨고 첫해부터 기둥형배나무에서 많은 배를 수확하였으며 올해에는 정보당 수백t이나 생산하여 큰 실리를 얻게 되였다.

뿐만아니라 금성리사람들은 키낮은사과나무를 비롯한 맛이 좋고 수확고가 높은 새 품종의 과일나무들을 대대적으로 심어 농장의 경제토대를 더욱 강화하였다.

농장에서는 자체의 과일나무 모생산기지도 꾸려놓고 매해 수천그루의 우량품종의 모들을 생산하여 안전하고 지속적인 장성을 이룩할수 있는 토대를 닦아놓았으며 린접군들에도 보내주고있다.

이뿐만이 아니다.

선진과학기술을 하나라도 더 습득하기 위해 이들은 올해에 들어와 농업과학기술보급실의 자료기지에 14만여건의 자료를 추가하였으며 통합생산체계를 구축하여 과일생산의 과학화실현에서 또 하나의 큰걸음을 내짚었다.

지칠줄 모르는 열정을 안고 창조의 열매를 가꿔가는 이들의 헌신성은 과일생산성과에로 이어지고있다.

지난해 온천과수농장이 전국적인 과수부문 사회주의경쟁에서 1등의 영예를 쟁취한것도, 과수품평회에서도 우수한 평가를 받은것도 자기가 사는 고장을 더욱 아름답게 꾸려가려는 이곳 사람들의 향토애가 안아온 자랑찬 결실인것이다.

자만을 모르고 더 행복한 래일을 향해 달려가는 이 고장 사람들은 과일생산뿐 아니라 새 생활창조에서도 앞장서나가고있다.

얼마전에도 이들은 사회주의 농촌문화에 어울리는 수십세대의 살림집을 새로 건설하고 문화후생시설들이 갖추어진 백과원과 문화회관을 비롯한 문화정서생활기지들도 꾸려놓아 리의 면모를 보다 일신시키였다.

언제인가 미국에서 동생인 강휘성을 찾아 금성리를 방문하였던 강휘인동포는 한폭의 그림마냥 백과 주렁진 이 고장의 모습에 심취되여 밤늦도록 발걸음을 떼지 못하였다고 한다.

오늘 날로 유명해지는 이 고장의 과수재배경험을 배우려고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고있으며 그때마다 그들은 약동하는 금성리의 숨결을 가슴벅차게 느끼게 된다고 한결같이 말하고있다.

글 본사기자 김지성
사진 본사기자 김영호

조선서해안지대에 자리잡고있는 남포시 온천군 금성리는 조국에서 주요과일생산지의 하나로 일러오고있다.

조선의 옛 화가들의 이야기를 펼치고

15세기 문인화가 강희안

생각에 잠겨

강희안(1417년-1464년)은 직업적인 화가가 아니라 벼슬을 한 사람이였으나 그림과 글씨에 하도 능하여 우리 나라 문인화의 대표적인 한사람으로 전해지고있다.

강희안은 1417년에 량반선비의 가정에서 출생하였다.

기록에 의하면 그는 24살 나던 해인 1441년에 문과에 급제하여 집현전 직제학 등의 벼슬을 하였다.

당시 량반사대부들속에서 갖추어야 할 자질은 이른바 《3절》(시, 서, 화)이였는데 강희안은 바로 이러한 품격과 재능을 다 갖춘 인물이였다고 말할수 있다.

강희안은 특히 미술에 재능이 있었는데 전해지는 말에 의하면 아버지의 영향을 받으면서 어려서부터 미술공부를 많이 하였다고 한다.

그의 뛰여난 그림솜씨를 보여주는 이야기가 있다.

다리를 건느다

어느한 시골에서 어린 소년(강희안)이 참새잡이장난에 정신이 팔려있었다. 이때 그 소년의 집으로 한 량반선비가 찾아왔다.

손님은 집주인의 친구로서 오래간만에 친구를 만나러 나들이를 온것이였다. 손님은 장난에 팔려있는 어린 소년을 보더니 끌어다 무릎에 앉히고 머리를 쓰다듬어주며 소년이 그린 그림들을 보자고 하였다. 소년은 손님의 손목을 잡아끌고 집뒤뜰안으로 돌아가 담벽에 그려놓은 그림들을 손가락으로 가리키였다. 담벽에는 숯검댕이로 쓴 글씨와 그림들이 있었는데 모두 획과 구도가 잘 맞아 제법 격식을 갖추고있었다. 손님은 감탄해마지 않았다.

이것은 강희안의 어릴적에 있었던 한 토막의 이야기에 불과하다. 그후 강희안은 글씨와 그림, 시와 문장짓기를 열심히 하여 과거에 급제하였으며 집현전 직제학의 벼슬로 《훈민정음》창제에도 관여하였다.

옛 기록에는 《강희안은 문장과 시에 있어서 정수를 체득하였고 전서, 예서, 해서, 초서를 다 잘 썼으며 지어 그림의 절묘함에서 으뜸이였다.》고 평가하였다.

실지 강희안의 그림의 특징은 묘사대상에 대한 세밀한 관찰력과 표현수법을 새로운 높이에로 끌어올린것이다.

대표적인 작품들로서는 《생각에 잠겨》, 《다리를 건느다》를 들수 있다.

강희안은 이웃나라에 사신으로 갔을 때 이름을 날렸다. 당시 그 나라의 이름있는 사람들은 강희안의 그림과 글씨를 보고 놀라워하면서 그림을 그려줄것을 간절히 부탁하였다.

15세기 학자 성현은 자기의 저서 《용재총화》에서 《강희안은 그 타고난 재주가 높고 기묘하며 옛사람들이 이르지 못한 곳까지 깊이 들어갔다.

풍경이건 인물이건 모두 뛰여났는데 일찌기 그가 그린 <미인도>를 보았는데 실물과 조금도 다름이 없었다.》고 평가하였다.

한마디로 강희안의 그림들은 대상을 단붓질로 대담하게 집약하고 함축하여 립체적으로 묘사하며 주인공의 형상에 모를 박고 나머지는 거기에 복종시키는 수법들을 쓴것이다.

옛 기록에는 《그의 그림의 정취는 맑고 상쾌하기가 마치도 소나무아래서 맞는 바람과도 같아 사람들의 고상한 정서를 한층 돋구어준다.》고 평가하였다.

강희안은 현실에 대한 관조적이고 보수적인 태도, 회화의 사회적기능에 대한 그릇된 견해 등 자체의 세계관적제한성으로 인한 문인화적요소를 가지고있었으나 조선봉건왕조초기 우리 나라 회화발전에 좋은 경험을 남긴것으로 하여 그의 이름은 후세에 전해지고있다.

김일성종합대학 실장 박사 부교수 강명석

산수도

감미로운 록두묵채

지금 조국의 산과 들에는 단풍이 곱게 들었습니다. 이 계절에 조국방문길에 오르군 하던 동포여러분이 못견디게 그리워지는 우리들입니다.

글쎄 며칠전에는 해방산호텔의 식당에서 록두묵채를 맛보는데 문득 한 재미동포녀성의 환하게 웃던 모습이 떠오르는것이 아니겠습니까.

몇해전이였던지. 금강산관광차로 조국에 왔던 김은숙동포는 해방산호텔에서 록두묵채를 처음 맛보고는 아주 별맛이라며 끼니때마다 꼭꼭 찾군 하였습니다.

우리는 이번호에 매끄럽고 쫄깃쫄깃한 록두묵이 소고기볶음, 여러가지 나물 등과 한데 어울려 더욱 감미로운 록두묵채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록두는 콩류에 속하는 곡식으로서 당질이 59.5% 들어있는데 농마가 86%를 차지하고있습니다.

선조들은 시원한 선들바람이 귀뿌리를 스치는 풍요한 가을이 오면 햇곡식으로 여러가지 음식들을 만들어놓고 동네방네 서로 나누어먹으며 화목하게 지냈는데 그가운데는 맛과 색이 독특하면서도 약리적작용이 높은 록두묵도 있었습니다.

록두묵쑤는 방법에 대해서는 이미 잡지에 소개한적이 있습니다.

그 방법을 간단히 상기시킨다면 적당한 량의 록두를 망으로 성글게 타개여 3~5시간동안 20℃정도의 물에서 충분히 불군 다음 껍질을 벗기고 록두를 물망질합니다. 거른 록두물은 1시간정도 앙금을 앉히웠다가 웃물이 맑아질 때까지 반복하여 농마앙금을 앉힙니다. 웃물이 맑아지면 가마에 그 웃물을 붓고 약한 불에서 서서히 끓이다가 농마앙금을 조금씩 풀어두면서 주걱으로 저어줍니다. 멍울이 없어지고 풀기가 생긴 후 5분정도 더 저어주면서 충분히 익힌 다음 평평한 그릇에 두께가 3~5cm되게 퍼담아 20℃정도 되는 방안온도에서 천천히 식힙니다.

록두묵은 지방마다 특성이 있었는데 남쪽지방에서는 묵을 쑬 때 치자물을 짜넣어 노란색을 띠게 하여 《황포》라고 하였고 평안도와 황해도에서는 맑고 파르스름한 색을 띠게 하여 《청포》라고 불렀습니다.

록두묵은 양념장을 쳐서 그대로 먹기도 하지만 록두묵에 보조음식감들을 넣어 먹을수도 있습니다.

록두묵 100g으로 록두묵채를 만들 때에는 소고기는 정육으로 30g, 미나리 30g, 도라지 30g, 버섯 20g, 마늘, 소금, 참기름, 식초, 사탕가루, 후추가루, 통고추 등을 준비합니다.

록두묵

록두음식은 맛도 이채롭지만 독특한 약리적작용이 크기때문에 건강에 아주 좋습니다.

록두묵채

먼저 록두묵은 길이 7cm, 너비 1cm, 두께 0.5cm 크기로 썰고 소고기는 얇게 편을 내여 가늘게 썰어 다진 파와 마늘, 소금, 참기름, 사탕가루를 넣고 재웠다가 볶아놓습니다.

미나리와 도라지, 버섯은 각각 소금으로 재웠다가 물을 꼭 짜서 식초, 사탕가루를 두고 나물을 만들거나 기름을 두고 볶습니다.

썰어놓은 록두묵은 팔팔 끓는 물에 슬쩍 데쳐 찬물에서 씻으며 식힌 후 물기를 찌웁니다.

록두묵을 그대로 썰어 보조음식감들과 함께 그릇에 낼수도 있지만 이것을 데쳐내면 색갈이 맑아지고 쫄깃쫄깃하여 보는 맛, 씹는 맛 또한 더 좋아지게 됩니다.

데친 록두묵을 참기름에 살짝 버무렸다가 그우에 소고기볶음, 미나리나물, 도라지나물, 버섯볶음 등을 차례차례 얹으면 료리가 완성됩니다. 기호에 따라 구운김이나 실닭알, 실고추를 더 넣을수도 있습니다.

록두묵채와 같은 록두음식은 감미로울뿐만아니라 약리적작용이 크기때문에 건강에 아주 좋은것으로 하여 많은 사람들속에서 인기가 높습니다.

그럼 동포여러분의 가정들에서도 록두묵채를 계절에 구애됨이 없이 만들어 맛있게 잡수시면서 민족적향취를 한껏 느껴보기 바랍니다.

글 김순영
사진 방은심

상식

건강에 좋은 콩과알곡작물

- 심장에 좋은 팥

팥은 장의 꿈틀운동을 원활하게 해주고 변이 잘 나가게 하며 혈압을 낮추고 혈당을 조절한다.

또한 해독 및 항암작용을 하며 결석을 예방한다.

- 간에 좋은 록두

록두는 해열, 해독작용을 한다. 일상적으로 먹으면 체내의 독소물을 내보내고 유기체의 정상적인 물질대사를 촉진한다.

또한 록두는 콜레스테롤수치를 낮추고 간을 보호한다. 록두에 꿀을 섞어 먹으면 해독효과가 더 크게 나타난다.

- 비장에 좋은 콩

콩은 지방의 소화흡수를 돕는 작용을 한다. 또한 비장을 튼튼하게 하므로 일상적으로 먹으면 로화를 지연시키고 신체를 건강하게 한다.

- 페에 좋은 흰콩

흰콩은 호흡기질병을 예방하는데 효과가 있다.

- 콩팥에 좋은 검정콩

검정콩은 매우 좋은 항산화제로서 콩팥을 보호하고 인체내의 피순환을 촉진하며 뼈와 근육을 튼튼하게 하고 마음을 안정시키는 작용을 한다.

*　　*　　*

단군유골과 화상

단군릉

단군릉은 우리 민족의 원시조 단군의 무덤이다.

릉은 평양시 강동군 문흥리 대박산기슭의 릉선마루에 자리잡고있다. 릉의 앞에는 대동강으로 흘러드는 수정천을 낀 기름진 넓은 벌이 있고 뒤에는 대박산에서 흘러내린 나지막한 산발들이 병풍처럼 둘러막혀있다.

단군은 조선민족의 첫 국가인 조선을 세우고 국가시대, 문명시대의 시원을 열어놓은 민족의 원시조이다.

단군은 지금으로부터 반만년전인 B.C. 30세기초에 《조선》(고조선)이라는 나라를 세운 력사적인물이다.

단군은 오랜 세월 신화적인 존재로만 간주되여왔다.

주체82(1993)년에 력사적자료에 근거하여 단군릉에 대한 발굴조사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 단군이 신화적존재가 아니라 실재한 인물이라는것이 밝혀지면서 조선은 반만년의 유구한 력사를 가지고있으며 조선민족은 단군을 원시조로 하는 단일민족임이 확증되였다.

그리고 조선민족은 평양을 중심으로 하여 형성되고 발전하여왔다는것을 립증할수 있게 되였다.

신화적, 전설적인물로 간주되여온 단군이 실재한 인물이라는것이 밝혀진데 따라 강동군에 단군릉이 새로 건설되였다.

총 부지면적이 45정보에 달하는 단군릉은 크게 단군릉개건기념비구역과 석인상구역 및 중심구역으로 나눈다.

단군릉개건기념비구역에는 단군릉개건기념비와 단군릉수축비 및 릉의 문기둥이 있다.

우리 나라 고대시기의 선돌형식을 살린 문기둥은 단군릉의 문을 대신한것으로서 릉앞 좌우에 각각 5개씩 가로 줄지어 세워져있다.

석인상구역은 단군의 아들들과 측근신하들을 형상한 조각상들이 배치되여있는 구역으로서 돌계단 좌우에 전개되여있다. 웃단의 좌우에는 단군의 네 아들상이 각각 좌우에 두상씩 마주 선 상태로 배치되여있고 아래단 좌우에는 측근신하상 8상이 좌우에 4상씩 마주선 상태로 세워져있다.

무덤구역에는 단군무덤과 상돌, 분향로, 범상과 검탑, 석등, 망두석 등이 있다.

릉에서는 10월 3일이면 개천절행사가 진행된다. 일명 단군제례라고 하는 이 의식은 사회적관습과 례식에 속하는 국가비물질문화유산으로 등록되였다. 우리 선조들은 단군을 민족의 원시조로 숭배하면서 단군의 후손임을 대대손손 자부해왔으며 수천년을 내려오면서 천신제, 태백산제 등의 이름으로 단군제례를 지내였다.

민족의 력사와 문화를 말살하기 위한 책동이 극도에 달하였던 일제의 군사적강점시기에도 조선인민은 굴하지 않고 단군을 신으로 숭배한 대종교(당시 단군교)를 창시하고 단군릉을 지키기 위한 단군릉수호회와 단군릉수축기성회를 결성하였으며 대종교 교주를 비롯한 수많은 신도들은 해마다 단군제례를 진행하여왔다.

단군릉은 우리 민족의 건국시조 단군의 유골이 안치되여있고 단군조선시기의 발전된 문화와 정치, 경제, 군사적위력을 보여주는것과 동시에 민족의 전통적인 무덤양식에 연원을 두고있는것으로 하여 민족성이 매우 짙은 문화적재보로 된다.

본사기자 김일봉

조선에서는 해마다 개천절(10월 3일)을 맞으며 단군제를 지내고있다.

청동기시대의
새로운 유적 발굴

사회과학원 고고학연구소와 라선시민족유산보호관리소를 비롯한 민족유산보호부문의 일군들과 연구사들이 최근 라선시 라진구역 해양동의 초도에서 조선사람의 형성과정과 이 지역 청동기시대문화를 잘 알수 있게 하는 새로운 력사유적을 발굴하였다.

유적은 청동기시대사람들이 묻힌 무덤으로서 장방형의 구뎅이안에 나무관을 묻어놓은것인데 여기에서는 두명분의 사람뼈와 20여점의 유물들이 발굴되였다.

사람뼈는 머리뼈봉합상태와 관절부위의 특징으로 보아 20~30살 되는 남성과 녀성의것으로 인정되며 우리 나라에서 신인단계부터 형성되기 시작한 조선사람의 고유한 특징이 신석기시대 조선옛류형사람을 거쳐 청동기시대 조선옛류형사람에로 련면히 이어져내려온 과정을 보여주고있다.

사람머리뼈의 형태를 보면 남자는 단두형이고 녀자는 단두형에 가까운 중두형이다.

머리뼈의 인류학적특징들을 보면 이마가 아주 곧고 얼굴뼈가 중간얼굴형이며 코마루가 낮고 중간코형에 속한다.

눈확은 높은 눈확형에 해당되며 입천장이 아주 넓은데 이것은 청동기시대 조선옛류형사람들에게서만 볼수 있는 고유한 특징들이다.

이것은 이 무덤의 주인공이 다름아닌 청동기시대에 우리 나라에서 살고있던 조선사람의 직계선조이며 같은 시기에 다른 지역에서 생활하던 사람들과 구별되는 자기의 고유한 인류학적특징들을 가지고 독자적으로 발전하여왔다는것을 잘 보여주고있다.

무덤에서 나온 곰배괭이, 도끼, 자귀, 활촉, 창끝, 찌르개살과 같은 석기들은 여러가지 재질의 돌들을 잘 다듬고 정교하게 갈아 만든것들이다. 그리고 질그릇은 우리 나라 청동기시대에 쓰인 대표적인 붉은간그릇으로서 조화로운 균형미와 섬세한 제작기술을 보여주는것으로 하여 하나의 공예품을 방불케 한다.

이번에 초도에서 발굴된 사람뼈와 유물들은 조선사람은 먼 옛날부터 우리 조국강토에서 하나의 피줄을 가지고 자기의 고유한 언어와 문화를 빛내이면서 독자적으로 살아온 단일민족이라는것을 확증해주는 또 하나의 귀중한 물질적자료로 된다.

본사기자

초도에서 발굴된 사람뼈와 유물들의 일부

상식

묘길상

묘길상은 고려때 금강산의 절벽에 새긴 부처조각상이다.

강원도 금강군에 있다.

묘길상은 높이 15m, 너비 9.5m이다. 얼굴은 높이 3.1m, 너비 2.6m이고 눈의 길이 1m, 손의 길이 3m, 발의 길이 3.2m이다.

묘길상조각은 바위에 돋움새김으로 하였으며 우리 나라 돌부처가운데서 가장 크고 잘된 대표작의 하나이다.

묘길상은 올방자를 틀고앉은 모습에 오른손은 우로 쳐들고 왼손은 아래로 내리우고있다.

묘길상조각은 벼랑에 새긴 다른 부처들보다 훨씬 크면서도 앉은 모습에서 높이와 너비의 비례를 잘 맞추었다.

이 부처의 본래의 이름은 아미타여래상인데 18세기말엽 조각의 오른쪽아래에 《묘길상》이라고 새긴 때로부터 묘길상이라고 불리운것같다.

묘길상은 우리 인민들의 조각재능을 보여주는 문화유산의 하나로서 잘 보존관리되고있다.

www.korean-books.com.kp

잡지 《금수강산》은 인터네트 《조선의 출판물》홈페지에
조선어, 로어로 게재됩니다.
http://www.korean-books.com.kp

주　　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평양시 서성구역 서천동
전자우편: flph@star-co.net.kp